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019-02-03
정간위 심의필 95-13-4-21

ISSN 1225-7168

새국어생활

제29권 제3호(2019년 가을) Vol. 214

인쇄일·발행일 2019년 9월 30일

펴낸이 국립국어원장

편집위원 류지철·박기영·박재현·이상혁·이호승

기획·편집 최혜원·박주화·홍규화

제작 (주)늘품플러스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주소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동 827번지)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27

새국어생활

2019년 제29권 제3호·가을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2019년 제29권 제3호·가을

차례

[특집] 모던걸에서 네넴핀까지 - 신어의 탄생과 진화

신어의 탄생, 사회와 문화를 담다 9
정한데로

신어의 빈도와 사용 추이 25
남길임

사전과 신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 39
이유원

빅 데이터 시대의 신어 55
김일환



지금 이 사람

‘새것을 녹여 내어 옛것을 풀어내는’ 학자

- 박인기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 교수 69

강남욱

문학 속 우리말

시인은 모국어 속의 이방인 89

박해현

삶과 우리말

식민주의적 건축 용어에 대한 짧은 생각 97

최우용

세계의 언어사전

일본의 언어 연구 사전 105

송영빈

국립국어원 소식 125

특집

모던걸에서 네넴핀까지 - 신어의 탄생과 진화

신어의 탄생, 사회와 문화를 담다

정한데로

가천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1. 머리말

매년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신어 자료집을 펼쳐 보면 무척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각 신어의 뜻풀이와 용례를 읽어 내려가면서, 과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 최초의 어느 누군가는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를 결합하고 대치하여 이들 단어를 만들었을 것이며, 각 단어는 해당 언어 공동체(speech community)에서 약속된 의미로 쓰이며 그 지위를 유지하였을 것이며, 이후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신어(neologism)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며 결국 국립국어원 자료집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당장 나에게서는 낯선 단어일지 몰라도 어느 집단의 누군가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단어들. 신어를 경험하며 그 의미와 용법을 처음 접하는 순간 개인의 어휘부(lexicon) 체계 변화를 촉발하는 작용들. 신어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의 언어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고 퍼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신어는 우리의 삶을 채워 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어휘 생산 및 언어 질서 파괴 등의 문제를 부각하며 신어의 형성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새로운 단어의 급격한 출현은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세대·성별·

직업을 기준으로 한 집단 간의 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언어 현실을 무작정 무시할 수만은 없지만, 사실상 신어로 인한 낯설과 불편함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인류 문화의 발전과 변화 속에서 새로운 대상과 개념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그 과정 초기에 각 공동체 간(세대 간, 국가 간, 종교 간) 소통과 화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들이 일부 동반되어 온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디지털화와 인터넷 기술의 개발, 스마트폰과 인공 지능(AI)의 확산 등 비단 언어뿐만 아니라 과학과 문화의 급진적 변화는 새로운 개념을 꾸준히 양산하면서 우리를 낯선 환경으로 이끈다.

100여 년 전 한국인들에게 ‘기차’와 ‘전화기’ 역시 매우 낯선 대상이었다. ‘불을 피우고 증기를 내뿜으며 바퀴를 굴리는 차’,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내 말과 생각을 전달하는 기계’를 처음 본 한국어 화자들은 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하였다. 그중 일부는 각자 나름의 단어를 만들어 이를 명명(naming)하였다.

- (1) 가. 룬거(輪車), 증기차(蒸氣車), 화룬거(火輪車), 화룬차(火輪車), 화차(火車)
나. 원어기(遠語機), 전어기(傳語機), 전어통(傳語筒), 전의기(傳意機)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1)의 단어가 무척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100여 년 전 문헌에서는 이들 단어가 두루 확인된다(김형철, 1990: 190, 227). 지금은 우리가 ‘기차(汽車)’와 ‘전화기(電話機)’로 공인화(institutionalization)된 단어를 쓰고 있지만, 두 대상이 처음 한국 사회에 소개되었을 당시에는 낯설고 어색한 (1)의 다양한 표현들이 공존하였다. 전혀 들어 보지 못한 대상과 개념, 그리고 그로 인한 새로운 단어들. 이에 관한 사전 지식 없이는 도저히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1)의 신어가 등장한 것이다. 결국은 (1)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오늘날 ‘기차’, ‘전화기’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들 신어를 통해 ‘증기와 화력으로 대표되는 기차의 모습’, ‘말과 뜻을 전하는

전화기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즉, 신어를 매개로 시간의 흐름을 읽고 과거 사회의 모습과 문화적 맥락을 탐색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신어의 속성에 주목한다면, 신어는 당대의 공시적 실상을 보여 주는 사진첩 속 생생한 '사진'과도 같다(정한테로, 2015다: 5).

이 글은 신어의 형성 문제를 밀도 있게 살피며, 형성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는 신어들의 특징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신어의 탄생은 단순히 잠깐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마는 유행 차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신어가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신어의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2. 대상과 개념의 표현, 그리고 신어의 형성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신어 형성에 관여하는 것일까? 새로운 단어의 등장 은 형식적·의미적 차원에서 고루 우리의 관심을 끈다. 대개는 낯선 형태의 등장, 그리고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생소한 의미에 주목하며 각 신어의 출현, 즉 결과적 차원에서 신어를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과정적 차원에서 신어 형성에 접근해 본다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신어를 둘러싼 3가지 측면, '화자의 의도', '맥락의 관여', '언중의 승인'을 주제로 신어의 탄생을 살피고자 한다.

2.1. 화자의 의도

화자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단어의 형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는 특정 상황에서 화자가 이름 지은, 즉 명명 과정을 거쳐 세상에 등장한다. 화자가 그것을 의식적(conscious)으로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상관없이, 단어는 화자가 목표한 대상을 부르하고자 하는

의도가 동기화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과정을 떠올려 보면 새로운 단어의 형성은 이를 위한 대상이나 개념의 출현이 전제된다.

(1)에서 언급한 바 있는 한자어 ‘기차’와 ‘전화기’에 대응되는 다양한 단어들 떠올려 보자. 19세기 말 당시 한국 사회에 새롭게 도입된 대상을 표현하고자 사람들은 여러 유형의 형태를 활용하여 (1)의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동일한 대상을 놓고서도 화자의 초점화(focusing) 방식에 따라 ‘증기(蒸氣), 화(火), 룬(輪), ‘원(遠), 전(傳), 어(語), 의(意)’ 등의 상이한 형태가 역동적으로 단어를 구성하였고, 이후 (1가, 1나)의 각 단어들은 일련의 유의어 경쟁을 거치며 언중들의 선택을 통해 ‘기차’와 ‘전화기’라는 대표 단어로 일반화되었다.

이렇듯 특정 사회 내부로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이 유입될 때, 언중들은 이를 명명하고자 하는 동기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양상은 비교적 최근에도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외래어를 통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

(2) 가. 내비게이션, 샴푸, 컴퓨터, 프린터, 호텔

나. 뉴스, 스케줄, 컨디션, 콤플렉스, 크리스마스

(2)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다. 이는 외래어를 직접 수용한 경우로, 이들 역시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대상이나 개념을 표현할 목적으로 출현하여 한때 신어의 지위에 있었던 것들이다. (2가)의 구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2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도 확인된다. 이들 단어는 국외로부터 현대 한국 사회에 도입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 그중에서도 영어가 깊이 관여한 현 사회의 풍경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앞서 관찰한 (1)의 100여 년 전 한자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3) 모닝콜, 백미러, 비닐하우스, 핸드폰

외래어 중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복합어도 있다. (3)은 한국에서만 관찰되는 자생적인 외래어 복합어로서 이들은 한국어 공동체 내부에서 형성된 단어이기에 단순한 차용이 아닌, 한국어 화자의 명명을 통해 탄생한 결과이다. (2)와 같이 외래어를 그대로 수용한 경우나, (3)과 같이 능동적으로 한국어 화자들이 만들어 낸 외래어의 경우 모두 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대상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도입된 단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신어의 형태론적 특징을 살펴보면 화자가 구현해 내는 단어 형성의 방식이 상당히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05년 신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4) 가. 달팽이족, 야식증, 추접남, 캡처꾼, 평양둥이

나. 갓난로, 낚시글, 매미춤, 미끼정치, 손베개, 쌀캔디

다. 걸기돈, 뒤집음말, 손떨침막, 파일보기폰, 털기춤

접미사 ‘-족(族), -증(症), -남(男), -꾼, -둥이’가 결합한 (4가)의 파생어는 물론이고, 단어와 단어가 결합한 (4나)의 합성어도 두루 관찰된다. (4다)는 동사에 접사 또는 어미가 결합한 구성이 다시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룬 예들이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결합 외에도 훨씬 다양한 유형의 단어가 관찰된다.¹

¹ 노풍당당: 노인의 풍채가 당당함을 ‘위풍당당’에 빗대어 이르는 말.

밥터디(←밥+study): 밥을 먹으면서 그날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정보를 나누는 모임.

소변인(笑辯人): 웃음과 유머가 있는 대변인(代辯人).

일석양득(一石兩得): ‘일석이조’와 ‘일거양득’을 합한 말로, 한 가지를 함으로써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의 말.

썸마젤라(←아썸마+cinderella):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의 기혼 여성을 이르는 말.

통플스테이(←통일+temple stay): 절에서 사찰 생활을 체험하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일.

(5) 가. 노풍당당, 밥터디, 쌀파라치, 소변인(笑辯人)

나. 일석양득, 줌마렐라, 톱플스테이, 흥가포르

다. 검경언(檢經言), 경활률(經活率), 정랭(政冷), 취뽀

(5가)는 ‘위풍당당, 스터디, 파파라치, 대변인’의 각 첫 음절이 ‘노(老), 밥, 쌀, 소(笑)’의 형태로 대치된 것이다.² (5나)는 ‘일석이조, 일거양득’, ‘아줌마, 신데렐라’, ‘통일, 템플스테이’, ‘홍콩, 싱가포르’ 구성을 혼성(blending)하여 신어를 형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화자가 의도한 구성 내 일부 음절만을 추출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 (5다)의 예도 확인된다.

한편, 기존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음으로써 신어의 지위를 획득한 사례도 있다. 다음은 국립국어원에서 2003년과 2004년에 발표한 신어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³

(6) 가. 님, 도토리, 방법(方法), 작업(作業), 퍼가다

나. 공청회(空聽會), 사오정(四五停), 삼일절(三一絶), 주부(主夫)

흥가포르(←홍콩+싱가포르): 홍콩과 싱가포르를 아울러 이르는 말.

검경언(檢經言): 검찰, 경제계, 언론계를 아울러 이르는 말.

경활률(經活率): ‘경제 활동 참가율’을 줄여 이르는 말.

정랭(政冷): 정치적으로 냉랭함.

취뽀(←취업+뽀개-): 취업 준비에 유용한 동아리. 커뮤니티 사이트 ‘취업 뽀개기’에서 유래한다.

² 연구자에 따라서는 (5가)의 구성을 대치가 아닌 결합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결합으로 보는 경우는 일부 단위를 절단한 후에 구성 간 결합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³ 님: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2003)

도토리: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싸이월드(cyworld)’에서 아이템을 구입할 때 쓰는 사이버 머니. (2004)

방법(方法): 인터넷상에서, 호되게 꾸지람을 주거나 벌을 주는 일. (2004)

작업(作業): 남자가 여자를 피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2003)

퍼가다: 인터넷 따위에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옮겨 다른 곳이 실음. (2003)

공청회(空聽會):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공청회(公聽會)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04)

사오정(四五停): ‘45세가 정년(停年)’이라는 말로, 정년이 아닌데도 직장에서 내몰리는 40대 직장인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03)

삼일절(三一絶): ‘31세면 절망’이라는 뜻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직장인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04)

주부(主夫):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꾸려 가는 남자. ‘주부(主婦)’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2004)

(6)에서 형태상의 새로운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미 실재하던 단어가 다른 맥락에서 달리 쓰이며 신어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6가)는 인터넷 등 특정 언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확산된 것이며, (6나)는 기존 단어에 동음이의 한자를 대치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가한 것으로서 한글 형태만 본다면 기존 단어와 차이 없이 동일한 모습을 유지한다. 새로운 형태가 생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화자의 의도에 의해 전에 없던 새로운 의미의 신어가 탄생한 것이 분명하다.

2.2. 맥락의 관여

단어는 각 시기의 사회·문화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한때 증기(蒸氣)로 움직이던 ‘기차(汽車)’가 여전히 그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도서, 신문 등 시기별로 인쇄된 문헌 자료에 수록된 신어에서 당시 사회 모습을 관찰 가능한데, 화자의 의도는 곧 화자가 살던 시대의 맥락을 포함하여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시기별로 신어에 담겨 있는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시 10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라 할지라도 매 시기 낯선 위치에서 삶을 시작한 신어들을 두루 관찰할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문헌에서 확인되는 대상이다.

- (7) 가. 교사(敎師), 교원(敎員), 선생(先生), 학교(學校), 학생(學生)
- 나. 우신(郵便), 우편(郵便), 우표(郵票), 전보(電報), 전신(電信)
- 다. 간병(看病), 병원(病院), 약국(藥局), 의사(醫師), 의원(醫院)

김형철(1990: 188~197)에 제시된 (7)의 신어에서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교육·통신·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대상과 개념들이 한국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각 대상을 지시하기 위한 명명의 동기

가 실현된 결과로 (7)과 같은 단어가 만들어졌다. 그중에는 ‘교원, 학교, 우편, 전보, 병원’ 등 일본 한자어의 영향을 입은 예도 다수 확인되는데(이한섭, 2014), 이 역시 시대적 특징을 드러낸다.

- (8) 가. 독후감(讀後感), 반혁명(反革命), 일반화(一般化), 초자연(超自然)
나. 농민 계급(農民階級), 동화 작용(同化作用), 봉건주의(封建主義), 사회 문제(社會問題), 자연 과학(自然科學)

파생과 합성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표현해 낸 (8)의 복합어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송민, 2000: 28 참고). 서양 학문의 유입, 격변하던 사회적·정치적 분위기 등 각 신어로부터 그 시기의 공시적 양상이 포착된다.⁴

- (9) 가. 공황(恐慌), 법인(法人), 분업(分業), 야당(野黨), 여론(輿論)
나. 뎡상(design), 독터-(doctor), 드라마(drama), 리알(real), 모-던(modern)

1934년에 발행된 《신어사전》에 등장하는 (9)의 신어도 주목된다.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서양 체계의 개념이 한국 사회로 수용되면서 이를 지칭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 필요하였다. 적지 않은 한자어가 일본을 거쳐 한국어 공동체로 유입되었으며, (9나)처럼 다수의 외래어도 당시 신어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 (10) 가. 균일가, 달동네, 복부인, 열대야, 유전 공학, 지구촌, 할인가, 해결사
나. 바바리코트, 워크홀릭, 유니섹스, 텔레페서, 폴리페서

⁴ 송철의 외(2007)은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발표된 소설에서 당시의 문물 수용 양상을 보여 주는 어휘들을 ‘건축, 경제, 경찰, 과학’ 등 26개의 세부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바 있다.

1980년대 초 신문 지면에 등장하는 (10)의 신어도 이전과 다른 방식의 개념이 새로 출현한 결과이다.⁵ 경제(균일가, 할인가, 복부인), 사회(달동네, 지구촌, 열대야), 과학(유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신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문화 및 부동산 경제의 확대, 산업화 및 세계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 과학기술의 고도화 등 개별 신어가 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한 (10나)의 외래어 신어도 당시 한국 사회를 이해할 만한 단서를 제공한다.

(11) 기러기 아빠, 라섹, 리클라이너, 모바일 게임, 버블티, 서클렌즈, 스팸 메시지, 알박기, 애견 카페, 오타쿠, 외계어, 이러닝, 취집, 카파라치, 컬러링, 템플스테이, 파티 플래너

(11)의 2002년 국립국어원 신어를 통해서도 당시 사회의 모습을 떠올려보자.⁶ 지금은 비교적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20여 년 전에 갓 등장한 이들 신어로부터 과거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자녀 유학의 활성화, 이동통신 기술 개발, 애견 문화 확산 등 각 신어의 출현은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담은 채 한국인들의 시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한다.⁷

(12) 가. 갠톡, 먹스타그램, 셀피, 여친짤, 임썹, 페메, 해시 태그
나. 감튀, 남사친, 뇌섹남, 맛저, 세젤예, 심멧, 애유엄브, 피껴숏

⁵ 이들은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 자료를 제공하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에서 '신조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집한 결과이다.

⁶ 알박기: 주요한 택지의 일부를 남보다 앞서서 사 두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취집(←취업+시집): 여성들이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이 매우 어렵게 되자 취업을 포기하고 그 대신 시집가는 일.

⁷ 2000년대 주요 일간지의 신어 명사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치, 사회, 문화적 요인을 탐색한 김일환(2014)도 참고된다.

2014년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서는 급속도로 확산된 누리 소통망(SNS) 문화가 반영된(12가)의 관련 단어가 다수 등장한다.⁸ 특히 최근에는 각 어절의 첫 음절을 결합한 방식인(12나)의 줄임 표현이 이전과 비교할 때 유형 및 출현 빈도 차원에서 모두 높은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현대 한국어 사용자들의 신어 형성 문화를 보여 주는 예로 여겨진다.

2.3. 언중의 승인

누군가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고 해서, 형성과 동시에 그 단어가 곧바로 신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특정 화자 혼자만이 쓰는 개인어(idiolect)는 그를 둘러싼 사회 전체로 확대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자의 명명을 통해 탄생한 단어가 신어로 자리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언중의 승인, 즉 ‘공인화’에 달려 있다.

신어는 언어 공동체의 공인화를 전제한다. 그렇다면 언어 공동체의 외연과 범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Hohenhaus, 2005: 360~362, 정한테로, 2015나: 241~242).

(13) 가. 두 사람(couples)

- 나. 한 가족, 소수 집단(가까운 직장 동료, 탐험 원정대의 작은 팀원 등)
- 다. 다수 집단((전문 용어를 쓰는) 전문 직업인, (은어를 쓰는) 특정 세대)
- 라. 특정 언어를 쓰는 언어 공동체(the speech community of a language)

⁸ 갠톡(←개인+카카오톡): ‘개인톡’의 준말.

셀피(selfie): 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는 일. 또는 그렇게 찍은 사진. =셀카.

여친짤: 메신저 프로필에 올리는 여자 사진.

읽씹: 문자 메시지를 읽고 나서 답장을 하지 않는 행위.

페메: ‘페이스북 메시지’를 줄여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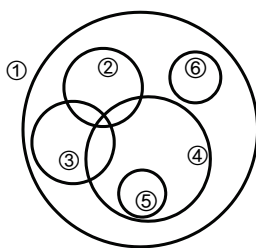
감튀: 감자를 썰어서 기름에 튀겨 낸 음식. =감자튀김.

맛저: ‘맛있는 저녁’을 줄여 이르는 말.

애유엄브: ‘애들은 유치원, 엄마는 브런치’를 줄여 이르는 말.

흔히 신어라고 하면 (13라)와 같이 특정 언어를 쓰는 언어 공동체 전반에 새롭게 도입된 단어를 생각하기 쉽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자료집 내 신어는 신문, 방송 등 언론에 노출된 단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3라)의 수준에서 인정되는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13다)와 같이 특정 세대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새로 등장한 단어도 신어의 범주에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 내 특정 집단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들이 그 영역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다수 확인된다. 이에 (13다)와 (13라)의 경계는 사실상 점점 더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듯하다. 언론 자료, 국립국어원과 같은 공식 기관의 발표 여부와 별개로 온라인에서 시작된 신어들이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는 모습이다.

(13나)와 같은 소수 집단 역시 언어 공동체를 이룬다. 따라서 가족 간이나 일부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져 쓰이기 시작한다면, 이 역시 신어로 볼 수 있다. 심지어 (13가)처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 한 명의 화자와 이를 공유하는 단 하나의 청자만 있어도, 그 단어 또한 신어의 범위에 포함된다.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이 역시 2명으로 구성된 언어 공동체 내에서 분명 승인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의 언어 공동체는 위 그림처럼 다양한 층위에서 복잡하게 구성된다(정한데로, 2015나: 242). 한 명의 개인은 소속 집단, 사용 언어권에 따라

서 매우 입체적인 방식으로 언어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①은 (13라)와 같은 특정 언어 전반에 걸친 넓은 수준의 영역을 포괄하는 반면, ⑥은 (13가)처럼 극도로 한정된 범위의 언어 공동체에 대응한다. 나에게 낯선 단어라 할지라도 다른 집단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미 공인화된 신어일 수 있으며, 그와 반대의 일을 겪는 것 역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결국 신어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그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즉 언어 공동체이다. 시기별 사회·문화적 맥락을 품은 채 화자의 의도를 통해 명명된 단어는 그 의미와 용법을 공감하는 언중들의 승인을 통해 비로소 신어로 완성된다.

언중의 승인은 곧 언중의 선호(preference)와 직접적으로 관련한다. 새로 등장한 단어를 언중들이 수용하여 높은 빈도로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확산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정적인 신어의 지위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미 신어의 지위에 오른 단어라 할지라도 이 역시 언중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면 이전과는 다른 위상을 얻기 마련이다. 즉, 잠시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지고 마는, 일종의 유행어 정도로 취급받을 여지가 많다. 신어의 지위를 언어 공동체가 결정하듯이, 이후 신어가 《표준국어대사전》 등재어가 되는 과정에서도 언중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3. 맺음말

최근에는 한글의 형태적 변이(variation)를 활용한, 이른바 ‘야민정음’이라고 불리는 단어들도 관찰된다. (6)과는 정반대로 의미적 차이 없이 형태적 차이만을 활용한 방식이다.⁹

⁹ (14)를 신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언어 공동체에서 이들이 충분히 공인화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14)도 신어로 보는 입장에 있다.

(14) 가. 네넴핀, 멍멍이, 세종머양, 커엽다, 팡주팡역시

나. 곤농, 곰국, 톰곡윙늑, 표멍름

다. 똥, 뽀, 꿀밥

글자 형태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비빔면, 멍멍이, 세종대왕, 귀엽다, 팡주팡역시’를 표현한 (14가), 180도 회전을 통해 ‘육군, 논문, 폭풍눈물, 물음표’를 표현한 (14나), 글자 압축을 통해 ‘돌돌, 부부, 굴국밥’을 표현해 낸 (14다)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앞서 제시한 신어들과 달리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을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형식의 일탈로 문자적 재미를 시도하고자 한 ‘화자의 의도’, 이러한 언어유희를 공유하는 젊은 세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이를 수용·확산하고 있는 ‘언어 공동체’의 역할을 (14)에서도 두루 포착할 수 있다.

꾸준히 만들어지는 신어 가운데 대다수는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곧 사라진다.¹⁰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그 쓰임이 지속되지 못하면 신어는 결국 스스로의 삶을 다하고 만다. 이렇게 보면 신어의 출현 자체를 크게 문제 시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떠한 이유로 이들 신어가 등장하였으며, 그 신어가 지금 우리의 어떠한 사회·문화적 모습과 맥락을 담고 있는지 관찰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¹⁰ 연구자마다의 연구 대상과 방법, 조사 기간 및 정착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비율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한다. 남길임(2015)에서는 27% 정도의 신어가 안정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으며, 정한데로(2015라)에서는 12%, 정한데로(2017)에서는 20%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 김일환(2014), “2000년대 주요 일간지의 신어 명사에 대하여”, 《민족문화 연구》 6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9~82쪽.
- 김형철(1990), 《개화기 국어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 남길임(2015),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재의 기준: 2005·2006년 신어를 중심으로”, 《한글》 310, 한글학회, 205~233쪽.
- 남길임·이수진(2016), 《신어》,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상진(2011), “1920~1930년대 대중잡지의 어휘소개에 대하여: 현황과 명칭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29~173쪽.
- 송민(1989), “개화기 신문명어휘의 성립과정”, 《어문학논총》 8,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69~88쪽.
- 송민(2000), “개화기 국어에 나타나는 신문명 어휘”, 《어문학논총》 19,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5~57쪽.
- 송민(2006), “20세기 초기의 신어”,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19~30쪽.
- 송철의·이현희·이용·양정호·서형국·이지영(2007), 《일제 식민지 시기의 어휘: 어휘를 통해 본 문물의 수용 양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한섭(2014),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 정한데로(2015가), “단어 형성 과정의 개념화와 언어화: 19세기 말~20세기 초 자료의 의의”, 《언어와 정보 사회》 2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158쪽.
- 정한데로(2015나), “단어의 공인화에 관한 고찰”, 《국어학》 74, 국어학회, 233~266쪽.
- 정한데로(2015다), “단어의 삶을 관찰하다”, 《어문생활》 212, 한국어문화, 4~5쪽.
- 정한데로(2015라), “신어의 형성과 빈도 변화에 관한 일고찰: 2004년 신어를 중심으로”, 《한글》 310, 한글학회, 171~204쪽.
- 정한데로(2017), “‘신어의 삶’에 관한 탐색: 2002년~2004년 신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83, 국어학회, 119~152쪽.

- 정한테로(2019), “단어가 품은 삶의 이야기”, 《어문생활》 255, 한국어문화, 4~5쪽.
- 한림과학원 편(2010), 《한국 근대 신어 사전: 現代新語釋義·新語事典》, 선인.
- Hohenhaus, P.(2005), “Lexic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Štekauer, P. & Lieber, R.(eds.), 《Handbook of Word-Formation》, Springer, 353~373.

신어의 빈도와 사용 추이

남길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신어의 삶과 죽음

매년 출간된 신어 자료집의 빈도순 목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18년 신어 조사》 자료집의 최고 빈도 신어는 ‘판문점 선언’, 2위는 ‘미투 운동’이다. 2015년 1·2위 신어는 각각 ‘셀카봉’, ‘땅콩 리턴’이었고, 2016년은 ‘흙수저’, ‘아재 개그’였다. 또 예년과 다르게 5월에 대선 이 있었던 2017년은 ‘장미 대선’, ‘벚꽃 대선’이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고빈도 신어에 대한 일련의 목록은 해마다 수집되는 신어와 신어의 빈도가 가지는 사회·문화적 의의와 가치를 보여 준다.

신어 수집과 함께 제공되는 신어의 빈도는 이러한 정보 외에도 정착된 신어와 임시어로서 사라지는 신어, 신어의 정착 양상 등을 보여 주기도 하는데, 10여 년 이상의 신어의 사용 빈도와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신어의 사용 추이, 즉 신어의 삶과 죽음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더욱 자주 언급되고 사용되는 그 많은 신어들의 생명 주기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까? 매년 등장하는 신어의 몇 퍼센트 정도가 한국어에 정착하고 몇 퍼센트는 사멸할까?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답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어떤 신어가 사전에 등재되어야 하는지, 언어 정책의 관점에서 신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빈도’는 신어 사용 추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반적인 단어와 달리 신어는 저빈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빈도를 신어의 안정화된 주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여러 연구[Metcalf(2002), Banhart(2007), Cook(2010)]에도 불구하고, ‘빈도’와 시간 단위로 분석되는 빈도의 분포는 신어의 사용 주기를 살펴보는 데 가장 확실한 자원이 된다. 다시 말해, 신어의 삶과 죽음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이다. 옥스퍼드 아메리칸 딕셔너리(Oxford American Dictionary)의 편집자이자 온라인 사용자 참여형 영어사전 워드닉(Wordnik)의 창립자인 매킨[Mckean(2014)]은 자신이 만든 새로운 단어가 사전에 남기를 바란다면 그 단어를 자주 쓰라고도 이야기한다.

웹의 언어 사용 비중이 급속히 높아진 현재에는, 웹에 등장한 대중 매체에서 그 어휘가 얼마나 사용되어 왔느냐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신어의 생존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익숙하거나 자주 사용된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 빈도와 출현한 기사 건수 등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 2015년 옥스퍼드 온라인 사전은 ‘Manspreading(쩍별남)’, ‘wine o’clock(와인을 마시기 좋은 시간)’, ‘butt dial(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둔 전화기의 버튼이 눌러 전화가 잘못 걸리는 일)’ 등을 새로이 등재했는데, 이들 역시 언중들에게 인정을 받아 충분한 빈도로 쓰인 예들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사용자 참여형 사전 ‘우리말샘’ 역시 위 ‘판문점 선언, 셀카봉, 흡수저’ 등과 같은 많은 신어를 등재하고 있는데, 이들 신어 역시 직관적으로나 양적 기준에서 충분한 빈도를 보인 사례들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류의 신어가 이러한 빈도의 기준을 충족할까? 더 나아가 모든 신어가 동일한 빈도로 쓰이거나 동일한 생명 주기를 가지는 것은 아닐진대, 오래 살아남는 신어의 비밀은 무엇일까? 언어 내적인 요인과 언어 외적인 여러 요인들 중에 무엇이 개별 신어의 사용 주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까? 이

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관심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어의 사용 추이를 설명해 주는 유일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신어의 빈도와 분포를 통해 얼마만큼의 신어가 한국어에 온전히 자리를 잡고 살아남는지, 그리고 사전에 등재되어야 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한국어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의 대강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의 기준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이러한 사용 추이 조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4장에서는 빈도 기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따르는 쟁점과 함께 신어 사용 추이 조사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기준과 쟁점

신어의 사용 추이는 주로 신어의 사전 등재 기준과 관련한 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멧캐프[Metcalf(2002)], 반하트[Barnhart(2007)] 등에서는 정착된 신어로 판명된 신어는 사전 표제어로 등재되어야 하므로 세밀한 기준을 통해 신어의 정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논의에서 신어의 생명 주기는 형태의 단순 빈도뿐만 아니라 해당 신어의 새로운 단어 생성의 가능성, 해당 신어가 뉴스 등의 제목으로 출현하는 빈도, 해당 신어의 출현 장르의 다양성 등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셰이[Hsieh(2015)]에서는 이러한 이전 연구를 ‘빈도 다양성(frequency diversity)’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다양한 사용자, 장르, 주제, 매체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빈도의 분석이 신어의 생명 주기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빈도 다양성’의 개념은 멧캐프[Metcalf (2002, 152~164)]의 ‘사용

자 및 상황의 다양성(Diversity of users and situations)', 반하트[Barnhart (2007)]의 '장르(genres)나 자료(sources)의 수', '사용 시기의 범위(time span)' 등을 일부 계승하고 종합한 개념으로 분석된다.¹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 사업의 신어 사용 추이 조사는 매년 10년 이전의 신어가 최근까지 약 10년간 사용되어 온 추이를 조사하며, 온라인 대중 매체를 대상으로 한다.² 특정 신어가 10년 이상 대중 매체에서 사용되어 온 빈도의 추이와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신어의 정착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2015년 처음 시작된 신어 사용 추이 조사는 현재까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신어 총 5개년의 신어의 사용 추이가 분석되었다. 신어 사용 추이의 개요와 주요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개요

ㄱ. 조사 대상: 조사 시점의 10년 전 신어

ㄴ. 사용 추이 조사의 범위: 신어 출현 시점부터 10년 단위로 하되, 매년 시기를 확장함.

ㄷ. 조사 방법 및 절차

i. 총 신어 각각에 대한 검색 결과에 대한 웹 크롤링

: 일치 연산자(“”) 사용, 같은 웹 주소로 연결된 기사는 하나만을 수집

¹ 멧캐프[Metcalf(2002, 152~164; 2004)]에서는 신어 등재의 기준으로 ‘퍼지 규칙(FUDGE rule)’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빈도(Frequency), 야단스럽지 않음(Unobtrusiveness), 사용자 및 상황의 다양성(Diversity of users and situations), 생성 능력(Generation of meanings and forms), 의미 지속성(Endurance of concept)’의 5가지 기준을 의미한다. 반하트[Barnhart(2007)]의 ‘VFRGT’ 기준은 다음과 같다.

V: the number of forms of W(다양한 표기 형태와 파생 형태의 수)

F: the frequency of w(빈도)

R: the number of sources in which w occurs(신문, 잡지, 뉴스 제목들의 수)

G: the number of genres in which w occurs(뉴스, 문학, 시, 수필, 블로그 등 장르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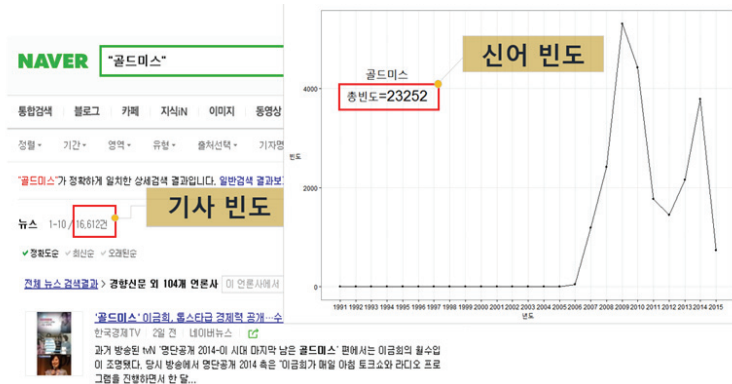
T: the time span over which w has been observed(해당 단어가 관찰된 시간 범위)

² 본 연구에서 소개된 신어 사용 추이 조사(2015년~2018년)는 ‘네이버’의 ‘연론사 뉴스’에서 검색 가능한 130여 개 내외의 대중 매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2015년 신어》(국립국어원, 남길임 외)부터 《2018년 신어 조사》(국립국어원, 남길임 외)까지를 참고할 수 있다.

- ii. 동형어 및 부분 형태 일치어, 띄어쓰기 등에 대한 처리
- iii. 구간별 빈도 계산³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 처음 조사된 신어는 2005년, 2006년 신어이고, 최초 출현 시기부터 2015년까지에 나타난 총빈도가 그 대상이 된다. 사용 추이 조사는 ‘빈도’의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생존 신어와 사멸 신어를 판별한다. 즉, 포털 검색에서 나타나는 기사 건수와 해당 대중 매체에 나타난 총빈도를 구분하고 계수하여 별도의 기준으로 활용하고(〈그림 1〉 참조), 연도별 빈도의 분포를 분석한다(〈그림 2〉).

그림 1 출현 빈도와 기사 빈도의 차이



- 3 (c)의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i) 각각의 신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웹 크롤링하되, 중복된 기사에 대해서는 하나만을 수집하였고, (ii) 검색 결과 동형어의 가능성이 있는 예들에 대해서는 규칙을 주거나 수작업을 통해 정제하였다. 이 단계에서 용례가 너무 많아 동형어 변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자동 형태 계수가 불가능하므로 사용 추이 조사에서 배제된다. ‘롤링, 디비’ 등 2음절 신어 등의 동형어가 그 예이다.(2005년, 2006년 신어 자료집에 의하면, ‘롤링’이나 ‘디비’는 각각 미용 커트의 새로운 기법과 ‘담배’를 나타내는 은어를 의미함.) 더불어 ‘다동이 가족’이나 ‘사건 집중 검토제’와 같은 구 단위 신어는 띄어쓰기가 수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규칙을 통해 계수하였다.

그림 2 2006년 신어의 사용 빈도 분석

신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골드미스	0	0	0	0	0	0	45	1188	2412	5303	4416	1770	1443	2158	3781	736	23252
표리허그	0	0	0	0	0	0	236	1043	407	322	681	670	1614	10064	6072	2140	23249
버블세븐	0	0	0	0	1	1	3726	3224	4349	3641	1575	589	1513	836	743	374	20572
반갑아라트	0	0	0	0	6	6	3816	5189	1028	940	357	785	342	187	124	117	12897
아이돌보미	0	0	0	0	0	0	167	556	830	1940	1153	819	665	1299	1206	297	8940
원정녀	0	0	0	0	0	0	1705	703	634	356	917	811	1241	1055	702	328	8452
생얼	0	0	0	0	0	0	1081	1190	959	625	745	764	533	609	868	761	8135
흔녀	0	0	0	0	0	0	14	76	86	65	217	611	939	2434	1953	869	7264
강동성	10	61	44	62	105	54	1400	984	1614	695	366	420	302	281	415	135	6948
왕은년	0	0	0	0	0	1	1909	1222	432	238	80	45	12	61	179	604	4793
순수제작물	0	0	0	0	0	0	216	1795	724	544	248	101	118	79	107	53	3985
완수남	0	0	0	0	0	0	57	1563	657	419	240	173	140	87	171	83	3590
꼭지점단스	0	0	0	0	0	0	2222	68	58	51	34	12	45	412	150	57	3109
엘프녀	0	0	0	0	0	0	240	35	140	161	1196	112	58	86	284	16	2328
텍스	0	0	0	0	0	0	86	104	130	172	339	218	458	316	226	116	2165
활영돼지피	0	0	0	0	0	0	280	415	47	34	42	82	21	71	1129	40	2161
농민사관학교	0	0	0	0	0	0	41	64	135	174	315	221	387	221	305	159	2022
여로망	0	0	0	0	0	0	3	0	143	127	291	275	337	254	241	110	1781
주먹바우저제도	0	0	0	0	0	0	44	78	79	168	60	254	250	531	197	13	1674

〈그림 1〉의 경우, 2006년 신어 ‘골드미스’의 기사 건수와 전체 빈도의 차이를 보여 준다.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네이버’에 ‘골드미스’가 출현한 기사의 건수는 16,612회이지만, 같은 기간 같은 기사 전체에서 출현한 ‘골드미스’의 출현 빈도는 23,252회이다. 이는 하나의 기사에서 ‘골드미스’가 여러 번 언급되는 경우와 ‘골드 미스’로 띄어 쓴 경우까지를 포함한 횟수로, 대중 매체 웹 말뭉치의 분석을 통한 별도의 과정을 통해 계수된다. 두 가지 유형의 빈도 모두 해당 신어의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신어의 확산 정도는 그 신어가 각기 다른 대중 매체에서 출현한 텍스트의 수를 통해서도 판단될 수 있지만, 전체 빈도를 통해 그 신어가 개념적, 기능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통해서도 판단될 수 있다. 한편 〈그림 2〉의 경우는 2006년 신어의 전체 빈도의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한 것으로, 개별 신어의 종적 사용 양상을 보여 준다.

2015년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에서 처음 도입된, 신어 사용 추이의 양적 기준은 아래와 같다. 즉, 지난 10년간 130여 개 웹 대중 매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20회 이상 출현하고, 10건 이상의 기사에서 출현하며, 5개년 이상의 연도에 분포하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생존 신어의 범주로 분류된다.

(2) 생존 신어의 기준

- ㄱ. 총 빈도: 20회 이상 출현
- ㄴ. 기사 건수: 10건 이상의 기사에 출현
- ㄷ. 연도별 분포: 5개년 이상에 분포

3. 신어는 얼마나 살아남는가: 2005~2009년 신어의 사용 추이

위 2장에서 논의된 생존 신어의 기준을 2005~2009년 신어 각각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신어의 출현 시점부터 10년간의 분석에서 생존 신어의 비율은 아래와 같이 27~33% 전후이다.

표 1 2005~2009년 생존 신어의 비율

	a. 전체 신어	b. 실제 분석 대상 ⁴	c. 생존 신어	생존 신어 비율 c/b(%)
2005	408	401	107	27
2006	530	514	143	29
2007	701	677	201	30
2008	475	458	134	29
2009	588	565	188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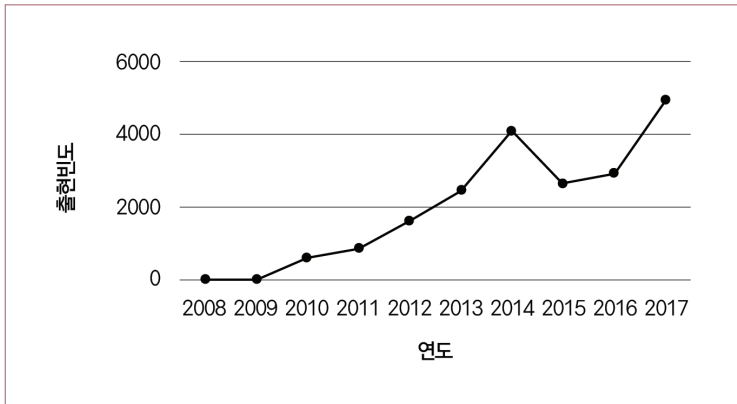
<표 1>에서 제시된 생존 신어의 비율은 동시에 사멸 신어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매년 30% 전후의 생존 신어를 제외한 나머지 상당수의 신어, 대략 70% 전후의 신어는 정착되지 못하고 사라진다. 언어권별로 신어의 삶과 죽음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멧캐프[Metcalf(2002)]는

⁴ 여기서 실제 분석 대상은 각주 3)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형태 중심 추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동형어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한 대상을 가리킨다.

매일 10,000개 이상의 새로운 어휘가 영어에서 만들어지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정착되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한 바 있다.⁵ 2005년, 2006년 신어를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사용 추이를 분석한 남길임(2015)에서도 최초 출현 연도에만 사용되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신어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실제로 2008년, 2009년의 전체 신어 각각 475개와 588개 중 해당 연도에만 쓰이고 사라진 신어는 각각 154개(32%), 175개(30%)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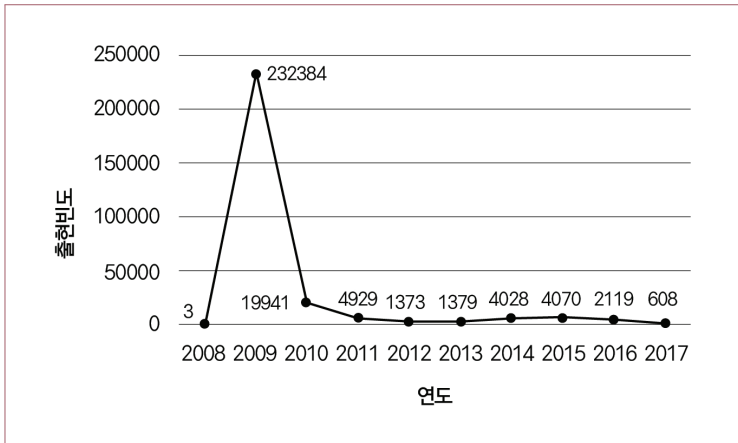
생존 신어는 그 추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상관없이 (2)의 조건을 만족한다. 아래 ‘연기돌’은 우상향 곡선으로 빈도가 증가한 사례를, ‘신종플루’는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에 최고 빈도를 기록하고 극적으로 감소하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림 3 ‘연기돌’의 빈도 추이



⁵ 본 연구에서 논의된 신어는 ‘대중 매체’에서 한 번 이상 쓰였다는 점에서 개인어나 임시어(nonce word)에서 어느 정도의 정착 단계를 거친 것으로 멧캐프(Metcalf(2002))의 연구 대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림 4 '신종플루'의 빈도 추이



신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원이나 조어론, 발음의 편이 등과 같은 언어 내적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 관심사나 지시 대상의 지속성 등과 관련한 언어 외적 요인도 있다. 하지만 모든 신어에 일관되게 적용할 만한 지배적 요인 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신어를 통해 생존 신어의 면면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아래는 2005~2009년의 생존 신어 중 지난 10년 간 총 사용 횟수 측면에서 최고 빈도를 기록한 신어 10위까지를 나타낸 것이다.

(3) 2005~2009년 신어 중 최근 10년 생존 신어(고빈도 10위까지, 괄호 안은 출현 빈도)

- ㄱ. 2005년 신어: 소비자피해주의보(2,815), 다등이가족(2,589),
 줌마렐라(2,285), 스쿨폴리스(2,261), 공시족(2,242),
 털기춤(1,624), 험한류(1,615), 세금폭탄론(801),
 월급고개(616), 안심택시(589)
- ㄴ. 2006년 신어: 훈남(37,426), 프리허그(31,330), 골드미스(23,519),

기프트콘(21,983), 버블세븐(14,168),
아이돌보미(9,607), 혼녀(8,590), 생동성(7,907),
쌍얼(7,318), 된장녀(7,119)

ㄷ. 2007년 신어: 주택연금(30,317), 위키리크스(29,625),
엄친딸(20,490), 글램핑(19,164),
복합환승센터(16,182), 노인장기요양보험(15,407),
엄친아(14,056), 모바일투표(13,459),
브이라인(12,619), 노란우산공제(11,993)

ㄹ. 2008년 신어: 토크콘서트(43,260), 녹색성장(30,971),
녹색산업(15,439), 프렌들리(14,136),
사이버모욕죄(6,814), 불빛축제(6,081),
전자종이(5,453), 학습지도요령해설서(4,957),
공정여행(4,778), 근황셀카(4,773)

ㅁ. 2009년 신어: 신종플루(270,834), 인증샷(244,510),
조리법(32,767), 신종인플루엔자(32,580),
주요쟁점(25,113), 연기돌(20,281), 꿀벅지(15,850),
옛지있다(14,499), 품절남(13,399),
돼지인플루엔자(12,679)

지금부터 적어도 10년 전에 최초로 출현하여 한국어에 정착된 대표적 사례인 위 신어의 예들은 일반어가 상당수 보이지만 전문어도 있으며, 발생 요인 또한 새로운 제도나 사물의 도입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있지만, 그러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류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한국어에서 10년 이상 충분한 빈도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정착된 신어라는 것이다. 이들 고빈도 신어는 지난 10년간 새로이 등장한 제도나 사물, 주요 사건이나 가치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4.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쟁점과 지향 방향

장기간의 폭넓은 빈도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된 신어 사용 추이는 정착된 신어를 선별하여 사전에 등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매년 수집된 신어의 사용 양상을 10년 이상 사용 추이를 조사하여 점검하고, 신어 정착의 양상을 살핌으로써, 언어의 창조와 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해석할 수 있으며, 언어 교육 및 언어 정책의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어의 정착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분석의 결과가 주관적인 직관과 늘 일치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사용 추이 조사의 방법론에는 몇 가지 쟁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선, 분석 대상 측면에서 신어의 범주와 사용 추이의 분석 대상을 무엇으로 한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사용 추이 조사는 개인어를 배제하고 대중의 공인을 받은 신어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 매체에 나타나는 신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 등 다른 웹 장르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블로그나 누리 소통망(SNS) 등 사적 자료를 포함할 경우 양적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⁶ 대중 매체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등 모든 주요 장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개인어를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다수에게 공인된 신어의 빈도를 찾는다는 점에서도 분석 대상을 ‘대중 매체’로 한정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당초 신어 조사가 대중 매체만을 대상으

⁶ 네이버 자료를 중심으로 대중 매체 출현 빈도와 블로그, 카페의 출현 빈도를 형태별로 비교하면 완전한 정비례식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상관성은 포착된다. 즉 대중 매체에서 고빈도로 사용된 어휘는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고빈도로 사용되는 듯하다. 다음 예는 ‘[대중 매체/ 블로그/ 카페]’의 순으로 각 신어의 빈도를 차례로 제시한 예이다.

판문점 선언 [118,114/ 55,617/10,667]

미투운동 [65,462/67,174/15,694]

흙수저 [34,776/65,765/32,635](이상 2019년 7월 10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 기준)

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다. 하지만 ‘대중 매체’의 범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웹 등 다양한 의사소통 매체의 성장과 확산을 고려하여 새로운 매체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형태 중심의 추이 조사는 모든 신어 유형의 사용 추이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자동 빈도 분석이 어려운 동형 의의어나 다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 의미적 신어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⁷ 이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신어 사용 추이 조사가 가능한 방법을 발견하기까지는 상당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온라인과 이동 통신을 통한 의사소통이 급증함에 따라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변화 속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다. 이와 함께 신어의 기능 역시 새로운 현상이나 ‘제도’, 외부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문물을 가리키는 좁은 기능만으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 듯하다. 2005년도 이후의 신어들을 추적해 보면, 오래 살아남은 신어의 부류에는 새로이 나타난 현상, 제도에 대한 명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어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 최근 신어의 대표적 사례로, 새로운 범주화나 가치 부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엄친딸’은 단순히 ‘엄마 친구의 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교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엄마가 늘 나와 비교하는 대상을 새롭게 범주화한다. 일반적으로 ‘엄친딸’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완벽한 조건을 가지며, 아들 버전인 ‘엄친아’ 역시 마찬가지다. ‘훈녀’나 ‘훈남’도 유사한데 예로부터 잘생긴 남녀는 늘 있어 왔지만, 보고 있으면 가슴이 ‘훈훈할’ 정도라는 감성적인 기준을 더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

⁷ 일반적으로 해마다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휘를 가리키는 ‘신어’라는 용어는 학자들에 따라 더 정밀한 용어로 정의되고 새로이 범주화되기도 한다. 신어를 새롭게 부호화된(coined) ‘어휘적 신어’와 기존 어휘에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진 ‘의미적 신어’로 구분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피셔[Fischer(1998)]에서와 같이 임시적 형태의 지위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언중들 다수에 의해 새롭다고 여겨지는 단어로 신어와 임시어를 구분하고 이를 인지적 관점에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다. 이것 역시 외적 특성만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잘생긴 사람을 범주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어가 가진 새로운 범주화의 기능이라 볼 수 있다. 신어 사용 추이 결과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 정착 신어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이들을 고려할 때, 신어의 정의와 주요 기능에 대한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신어는 지칭할 표현이 마땅히 없는 새로운 사물이나 제도를 명명하는 것을 넘어서, 언중이 가지는 언어의 창조성, 새로움의 추구, 웹과 이동 통신을 통한 언어유희의 향유 등을 보여 주며 이러한 요인들이 뒤섞인 복합적인, 존재 이유를 가진다.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생존 신어를 판별하고 사전 표제어로 등재하는 데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어성(neologicity)과 사전 등재 가능성(dictionaryzability)은 서로 매우 긴밀하되 각각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최근 들어 신어와 신어 사용 추이, 사전 등재 등에 대한 연구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북미사전학회(Dictionary Society of North America)의 세계사전학회(Globalex) 공동 연수(워크숍)의 주제도 ‘사전학과 신어(Lexicography and Neologisms)’였고, 신어의 판별과 사용 추이, 사전 등재의 기준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되었다. 향후 한국어 신어 사용 추이 조사 결과가 우리의 ‘직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모국어 화자가 느끼는 신어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더욱 완벽한 기준은 없는지, 동적 언어의 현실을 반영하는 사전의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등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길임(2015),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재의 기준-2005·2006년 신어를 중심으로-”, 《한글》 310, 한글학회, 205~233쪽.
- 남길임·이수진·최준(2017),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72~106쪽.
- Barnhart, David K.(2007), “A Calculus for New Words”, 《Dictionaries: Journal of the Dictionary Society of North America》 28, 132~138쪽.
- Cook, P.(2010), “Exploiting Linguistic Knowledge to Infer Properties of Neologisms”, PhD. thesis, University of Toronto.
- Fischer, R.(1998), 《Lexical Change in Present-day English: A Corpus-based Study of the Motiva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Productivity of Creative Neologisms》,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 Freixa, J. & Tomer, S.(2019), “Beyond Frequency: On the Dictionarization of New Words in Spanish”, Globalex Workshop on Lexicography and Neologism, the 22nd biennial meeting of the Dictionary Society of North America, at Bloomington, Indiana.
- Hsieh Shu-kai. (2015), The Secret of Long-Living Words: Predicting the Lexical Age of Neologism with Big Data, In *Proceedings of the 9th Asialex International Congress*, Hong Kong.
- McKean, E.(2014), Go ahead, make up new words!,
<https://www.youtube.com/watch?v=pMUv6UWkuWw>
- Metcalf, A.(2002), 《Predicting New Words: The Secrets of Their Success》, Boston: Houghton Mifflin.
- Nam et al.(2016), “The Life and Death of Neologism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Neologisms in the Dictionary?”, the 17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Proceedings.

사전과 신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

이유원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학예연구사

1. 서론

사전은 평소 우리가 쓰지 않고 알지 못하는 많은 어휘를 담고 있다. 사전을 뒤적거리다 보면 정말 평생 가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어휘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말도 한 단어로 있어?’ 같은 생각을 하다 보면 대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으며, 사전은 얼마나 많은 단어를 담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말이 사전에 실려 있지는 않다는 점이 또한 재미있다. 말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 만들어지며 사라진다. 사전은 이러한 말의 역사와 모습을 기록하는 매체이다. 사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사전은 기본적으로 ‘사전(辭典)’이라는 말 그대로 ‘말의 책’이라는 뜻에 걸맞게 끊임없이 말을 모아 담는 매체이다. 말을 풍부하게 모으고 담아내는 사전 고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전은 새로 나온 말을 계속해서 조사하는 일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전과 신어의 관계를 국립국어원의 이용자 참여형 사전인 《우리말샘》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과 함께 《우리말샘》에 신어가 실리는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말샘》이 신어를 포함하여 표제어를 추가하고 사전 정보를 보완해 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사전과 신어 조사

사전에 새로 생긴 말을 담는 일은 사전을 만들고 보완함에 있어 기본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기존 사전들을 살펴보면 사전이 신어를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만 하더라도 1999년 처음 종이 사전으로 출간된 이후 2002년 웹 사전 형식을 개통할 때까지 내용상의 큰 차이가 없었다. 2002년 개통한 웹 사전은 종이 사전을 온라인으로 옮겼을 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50만 어휘 규모의 종합 대사전을 만들 당시 기존 사전들이 담지 못했던 미등재어나 그간 새로 생긴 말을 등재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한번 발간된 이후 새로 생긴 말을 꾸준히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사전에 반영하는 일은 거의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2008년에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개정판을 개통할 때에는 새로운 표제어를 다소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어라기보다는, 사전을 운영하면서 발견된 사전 미등재어 위주였다고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은 1994년 처음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어의 개념이나 조사 목적, 조사 대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최혜원(2018)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진다.

단계	연도	기간	대상	방법	매체
1기	1994	1994. 6~1994. 10.	미등재어	수작업	신문·잡지 8종
	1995	1994. 10.~1995. 10.			
	1996	1908~1994			현대시 10,886편
	2000	2000. 4.~2000. 10.			신문 9종
	2001	2001. 3.~2001. 9.			
2기	2002	2002. 2.~2002. 8.	신어/ 미등재어		신문·방송(뉴스) 4·5종, 중앙 일간지, 인터넷 포털
	2003	2003. 2.~2003. 9.			
	2004	2004. 2.~2004. 9.			
3기	2005	2005. 1.~2005. 11.		말뭉치 구축	신문·방송 40종
	2006	2006. 1.~2006. 11.			
	2008	2008. 1.~2008. 12.			신문·방송 27종
	2009	2009. 1.~2009. 12.			신문·방송 55종
	2010	2010. 1.~2010. 6.			신문·방송 88종
4기	2012	2011. 7.~2012. 6.		웹 기반 신어 추출기	신문·방송 139종(네이버 뉴스 제공)
	2013	2012. 7.~2013. 6.			
	2014	2013. 7.~2014. 6.			
	2015	2014. 7.~2015. 6.			
	2016	2015. 7.~2016. 6.			
	2017	2016. 7.~2017. 6.			
	2018	2017. 7.~2018. 6.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전 편찬이나 사전 보완 작업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기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특정 신문이나 잡지, 현대시 작품을 대상으로 수작업을 통해 미등재어를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던 것이 2기부터는 신어와 미등재어를 함께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2기까지는 아직 비교적 많지 않은 수의 언론 매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신어 조사였지만, 3기부터는 그 대상과 방법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하는 매체의 수가 계속해서 확대되었으며, 말뭉치 구축을 통해 신어 추출이 진행되

었다. 4기에 들어서는 《우리말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포함된 웹 기반 신어 추출기를 바탕으로 신어를 추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말샘》의 웹 기반 신어 추출기는 계속해서 그 기능을 보완해 가는 중이다. 이를 통해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이 점차 그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에 있어 보완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대상에 대한 명명이나 새로운 표현에 대한 욕구로 최근에 만들어진, 생성 시점과 조사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개념의 새로 나타난 말을 조사한 결과가 신어 조사 사업에 포함됨으로써 신어 조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보완된 셈이다.

그러나 사전과 신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신어 조사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전의 미등재어를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하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지 않다. 물론 신어와 미등재어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조사 목적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나 시점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전의 표제어 등재는 출현 시점과 조사 시점이 일치하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말을 신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전의 표제어 추가가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새롭게 등장한 그 어휘가 과연 사전에 실릴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을 가지고 언중들에게 인정받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사전의 표제어 등재 기준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언중들에 의해 널리 쓰이는 말’이라는 기준은 대부분의 사전에서 모두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길임(2015)에서, 신어가 연도별 신어 자료집에 등재되어 특정 시대를 반영하는 기록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과 별도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빈도 이상 사용되어 일상화된 신어를 사전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빈도 및 분포를 중심으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상에 대한 명명이나 새로운 표현에 대한 욕구로 최근에 만들어진, 생성 시점과 조사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개념의 새로 나타난 말은 신어 조사 사업에서 조사가 되었다고 해도 바로 사전 등재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종합 대사전이면서도 규범 사전의 성격 역시 가지고 있어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다시 말해 일정 빈도 이상 쓰임이 보여 언어생활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주로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신어는 그 특성상 특정 기간 내에 두드러지게 쓰이다가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임시어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국립국어원의 사전을 포함한 기존 사전에서는 신어의 등재 수나 구성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셈이었다.

3. 《우리말샘》의 신어

3.1. 《우리말샘》의 등장과 신어

기존 사전의 신어 반영 양상이 앞장에서 다룬 내용과 같았다면, 2016년 10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이 개통된 이후로는 사전에서의 신어 반영 양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쉽고 살아 있는 사전 편찬’ 계획을 바탕으로 기획된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한국어 기반의 콘텐츠를 확장하여 마련하며, 국민이 사전 편찬에 직접 참여하여 실생활어 중심의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기존의 사전은 국어학자나 사전 편찬자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위주가 되어 사전 표제어를 선정하고 사전 내용을 편찬하는 제한적인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한번 발간된 사전을 수정·증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 조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지면의 제약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없다는 제한이 많았다. 그러나 사전 편찬의 환경이 종이 사전에서 웹 사전으로 바뀌어 이용자 참여형 사전인 《우리말샘》이 개통됨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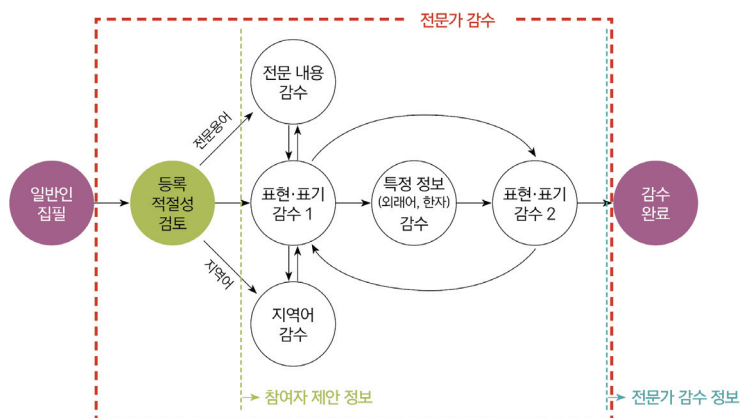
라 제한된 전문가만 참여하는 형태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으며, 실제 언어 현상과의 시차를 대폭 줄여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말샘》의 많은 정보는 자유 저작권 정책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전면 개방, 제공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자료로 사용하거나 특화된 사전,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2차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다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고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사전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 많은 이용자들은 활발한 참여를 통해 《우리말샘》에 새로운 말을 올리고 있다. 2016년 10월 5일 개통 이후 《우리말샘》의 일반인 집필 참여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개통 3년 차인 2018년에는 일반인 참여가 이전 해에 비하여 급증하여 국민들의 언어 지식 제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통 이후 《우리말샘》의 연도별 일반인 참여 및 사전 반영 건수는 아래 표와 같다.

《우리말샘》 연도별 일반인 참여 및 반영 건수			
	2016년(10월 개통 이후)	2017년	2018년
일반인 등록 제안	3,006건	7,467건	36,162건
전문가 감수 후 사전 반영	1,644건	2,208건	8,232건

위의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샘》에 새로운 표제어가 등재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말샘》의 특징 중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인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참여의 개방성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참여로 확장·갱신된 정보를 전문가가 감수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데에 있다. 전문가가 다방면에 걸쳐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우리말샘》에 새로운 표제어가 등재되어 사전 내용을 반영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일반인 참여 정보: 표제어, 품사, 원어, 발음, 범주, 방언 지역, 뜻풀이, 전문 분야, 학명, 대역어, 용례, 다중 매체 자료 등 12개 항목

위의 표와 그림을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자. 2018년에는 일반인이 집필하여 등록을 제안한 내용이 모두 36,162건으로, 전년 대비 384%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인이 사전 집필에 직접 참여할 때에 최대치로 집필할 수 있는 사전 항목은 위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총 12개 항목이다. 이렇게 일반인이 등록하여 제안한 집필 내용은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다음 단계로는 표제어를 일반어, 전문 용어, 지역어로 나누어 각각의 경로에 맞게 전문가 감수를 거친다. 기본적으로는 국어학·사전학 영역에 대한 검토인 표현·표기 검토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관련 내용을 별도로 검토하는 특정 정보 감수로 나뉜다. 이와 같은 감수 과정을 거친 일반인 등록 제안 내용은 '전문가 감수 정보'라는 분류로 이용자들에게 공개된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전에 반영된 것이 모두 8,232건이었다.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등록한 내용 중에는, 기존 사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던 신어도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우리말샘》의 탄생 배경과 목적을 밝힌 것을 다시 떠올려 보면, ‘신어’야말로 《우리말샘》이 기존 사전과 다르게 내세울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말샘》에 올라온 신어의 실제 예시를 들어 살펴보려고 한다.

3.2. 《우리말샘》 속의 신어

《우리말샘》에 올라오는 많은 새로운 정보 중에 이 글에서 눈여겨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미등재어보다는 신어 쪽에 가깝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나누어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이 글에서는 생성 시점과 조사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개념의 새로 나타난 말에 가까운 예시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말샘》에 신어가 유입되는 경로는 대부분 일반 이용자가 등록 요청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앞에서 말한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의 결과도 일부 포함된다. 일반 이용자가 등록한 신어는 앞에서 살펴본 《우리말샘》의 표제어 등재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우리말샘》의 전문가 감수 정보로 최종 반영된다. 신어 조사 결과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사 결과물이 우선 《우리말샘》 표제어 등록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본 후, 표현·표기 감수 과정을 거친다. 신어 조사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사전 미시 구조 형식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가 올린 정보보다 상대적으로 표현·표기 감수가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신어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신어의 유형을 나누고 있듯이, 《우리말샘》에 오르는 신어의 유형도 비슷하다. 해당 시기에 새로 생겨난 대상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것, 시대적인 쟁점을 담고 있는 것, 특정 집단에서 은어나 유행어

처럼 쓰이던 것이 이용자층이 확대되어 널리 퍼진 것 등 다양하다. 형태적 신어뿐만 아니라, 의미적 신어나 문법적 신어 등도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신어의 정의나 유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논의들에 기대기로 하고, 《우리말샘》에 최근 실린 신어의 실재를 살펴보는 것으로 의의를 찾으려고 한다. 이제 《우리말샘》에 반영된 신어의 예시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자.

(1) 가. 길 과장

: 출근이나 출장 등으로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과장 직위의 사람을 이르는 말.

¶ 서울 출장을 줄이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세종시에는 길 과장으로 불리는 이들이 아직도 수도룩합니다.《파이낸셜뉴스 2015년 10월》

나. 헬조선

: 지옥을 의미하는 ‘헬(hell)’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을 결합하여 만든 말로,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

¶ 자기 세대의 특징을 ‘포기’로 표현해야 하는 젊은이들은 한국을 가리켜 ‘헬조선’이라고 부른다.《경향신문 2015년 10월》

다. 휘게 라이프

: 소박하면서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며 사는 생활.

¶ 일상의 여유로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북유럽 생활 양식 ‘휘게 라이프’가 뜨고 있다.《내외경제티브이 2019년 2월》

(1)의 예는 시대적 변화나 상황 혹은 시대적 이슈를 담고 있는 신어라 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 세종 청사로의 중앙 부처 및 소속 기관의 이전이 시작되면서,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일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났다. 특히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들의 출장이 많았는데, 이를 빗대어 ‘길 과장’, ‘길 국장’과 같은 말이 새롭게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생기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

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어인 셈이다. (1가)와 (1나)는 좀 더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헬조선’은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젊은 이들 사이에 널리 퍼진,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신어 중 하나이다. 반면 ‘취계 라이프’는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점차 너무나 바쁘고 각박하게 돌아가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지양하여 그것을 벗어나 좀 더 일상과 개인의 여유를 추구하자는 분위기에서 퍼진 생활 양식이다. 북유럽의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 우리에게 들어와 새롭게 생긴 말이 되었다. 우리 사회와 시대의 변화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 주는 신어라 할 수 있다. 말이 만들어지고 퍼지게 된 생성 시점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신어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2) 가. 레어템

: 희귀한 물품. 온라인 게임에서 귀하고 좋은 아이템을 지칭하는 것에서 비롯한 말로, ‘레어 아이템’을 줄인 말.

¶ 빈티지 신발, 빈티지 가방 등 의류에서 액세서리까지 빈티지 패션을 주도하는 다양한 레어템을 판매하고 있다. <굿데이스포츠 2011년 1월>

나. 인생템

: 평생 쓰고 싶을 정도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물건을 이르는 말.

¶ 온라인상에서 일명 ‘인생템’으로 불리며 많은 여성에게 사랑받는 화제의 제품이다. <헤럴드경제 2015년 11월>

다. 애정템

: 애정을 가지고 몹시 아끼는 물건을 이르는 말.

¶ 개인 ○○에 평소 사용하는 제품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린 그는 ‘오늘도 내 피부를 책임져 주는 애정템’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경제 2015년 10월>

라. 아재템

: 중년 남성들이 즐겨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물건을 이르는 말.

¶ 이공삼공 세대에서 아저씨들만의 제품이었던 ‘아재템’이 인기를 얻는 것은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팍팍한 현실 속에서 실용적 멋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일보 2017년 2월>

(2)는 특정 집단에서 많이 쓰이던 말이 널리 퍼지면서 다른 말과 다양하게 결합하여 많은 파생어를 만들어 낸 경우라 할 수 있다. (2가)의 뜻풀이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템’이란 말은 ‘○○+아이템(item)’과 같이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많이 쓰이던 말이었다. 이것이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언어생활 전반에 널리 쓰이면서 인생템, 애정템, 아재템과 같이 수많은 ‘○○템’이라는 것을 파생시켰다. <우리말샘>에는 일반 이용자에 의해 ‘템’ 자체가 “아이템’의 준말로,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품목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풀이와 함께 하나의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규범 사전을 지향하던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여타의 기존 사전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말샘>만의 개방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 남사친

: ‘남자 사람 친구’를 줄여 이르는 말.

¶ 내 이성 친구가 힘들 때 가장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착하고 이해심 많은 남사친의 경우 정서적 교류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함이 된다는 평가다. <매일경제 2016년 10월>

나. 세젤예

: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를 줄여 이르는 말.

¶ 배우 ○○○의 세젤예 미모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스포츠조선 2016년 9월>

다. 내로남불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

¶ 유명 브랜드 제품을 베낀 업체들이 자사 특허 침해엔 민감한 반응을 보여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3)은 신어가 만들어짐에 있어 가장 흔히 보이는 유형인 줄임말의 경우이다. (3가)와 같이 ‘남자 사람 친구’라는 새로운 명명을 줄여 말하는 경우이다. ‘남자 사람 친구’의 경우 기존의 ‘남자 친구’가 단순히 성별이 남자인 친구가 아닌 ‘연인 관계에 있는 남성 친구’라는 것으로 한정되어 쓰이자, 차이점을 강조하고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남자 사람 친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 현상과 관련이 있다. 《우리말샘》에는 ‘남자 사람 친구’가 ‘연인 관계가 아닌 남성 친구’라는 의미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실제 언어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을 담겠다는 《우리말샘》의 기존 취지를 보여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남자 사람 친구’라는 말을 줄여 쓰는 ‘남사친’뿐만 아니라, 더 긴 표현을 한 단어로 줄여 쓰고 싶어 하는 언중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 주는 ‘세젤예’나 ‘내로남불’과 같은 것도 줄임말 형태의 신어이다. 이러한 형태의 신어는 이외에도 다수이며 앞으로도 《우리말샘》에 많이 오르게 될 것이다.

(4) 가. 멍멍이

: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서 ‘멍멍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적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컴퓨터 모니터로 볼 때 ‘댕’자와 ‘멍’자가 잘 구별되지 않은 착시 효과를 재치 있게 활용한 것이다.《아시아경제 2016년 1월》

나. 땡작

: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서 ‘땡작’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적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 ‘○○○’은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소신 있게 사건을 파헤치는 배우 ○○○에게 매료돼 단숨에 시청자들의 ‘땡작’으로 떠올랐다.《인사이트 2017년 11월》

다. 땡곡(명곡), 땡언(명언), 머가리(대가리), 머박(대박), 커엽다(귀엽다)……

기존 사전이라면 거의 높은 확률로 담지 못했을 법하지만 《우리말샘》에

는 실려 있는 신어 유형이 바로 (4)이다. 《우리말샘》 뜻풀이에는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4)는 얼마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야민정음’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신어이다. 인터넷상에서 널리 퍼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유형은 단어의 뜻과는 무관하게 글자 모양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어라는 점에서 기존 신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언중들이 이러한 유형의 신어를 재미있게 느끼고 두루 쓰고 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쓰여 안정적인 생명력을 갖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와 같은 유형은 앞의 다른 유형들 중에서도 생성 시점과 조사 시점의 격차가 가장 짧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아마 기존 사전의 관점에서 (4)와 같은 유형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어휘의 생명 주기를 살펴보면서 완전히 언중의 생활에서 자리 잡혀 쓰이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시점에서야 사전 등재 후보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말샘》은 기본적으로 사전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는 자료 보관소(아카이브)이자 모든 언어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기반을 두어 봤을 때, (4)와 같은 유형은 기존 사전에서는 담지 않았던 정보를 포함한 《우리말샘》만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지점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샘》은 사전으로서의 기능과 언어 자료 보관소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말샘》 내 콘텐츠와 시스템 구조를 좀 더 세분화하여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4. 결론

신어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물을 누적하여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사전의 보완 및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살아 있는 언어를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이야말로 사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우리말샘》이 개통되면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신어가 사전에 등재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말샘》 개통 초기이므로 일반인 이용자에 의해 추가되는 표제어 중 많은 수는 진정한 의미의 신어라기보다는 미등재어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수의 미등재어가 채워지고 진정한 의미의 신어가 등록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말샘》은 사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는 자료 보관소로서의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우리말샘》뿐만 아니라 모든 사전이 각각의 용도나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샘》은 기존 사전에서 임시어의 성격이 강한 신어를 실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기록해 나가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는 현재와 같은 신어 조사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말샘》 시스템 내의 웹 기반 신어 추출기의 기능을 좀 더 발전시켜 신어 추출 및 신어 생명 주기 분석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와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말샘》은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말을 흡수하여 실생활어 중심의 살아 있는 한국 언어문화 정보의 집합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남길임(2015),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재의 기준”, 《한글 310》, 한글학회, 205~233쪽.
- 박광길·최윤(2017), “우리말샘(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활용한 신어 연구”, 《인문과학 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43~266쪽.
- 최혜원(2018), “사회 변동에 따른 어휘 변화 - 국립국어원 신어 사업을 중심으로 -”,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37~50쪽.

빅 데이터 시대의 신어

김일환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도입

우리는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아니, 우리는 늘 데이터와 함께 살아왔다. 데이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존재한다. 디지털 혁명을 겪으면서 데이터의 규모와 생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을 뿐이다. 소위 ‘빅 데이터’(big data)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빅 데이터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정보를 새로운 시각에서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 특히 빅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는 데이터의 규모가 크건 작건 대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직관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의 ‘솔직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포착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빅 데이터의 시대 속에서 ‘신어’를 논의의 주제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빅 데이터 시대의 신어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빅 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신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가 기존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신어의 조어 유형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글에서는 빅 데이터 시대의 신어를 포착하기 위한 여러 방법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신어 연구의 경향

지금까지의 신어 연구는 크게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특정한 시기의 신어를 제시하고, 이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문금현(1999)를 비롯한 많은 연구가 이러한 유형에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발견된 신어들을 제시하고, 이들의 조어적인 특성, 사용 배경 등에 관심이 많았다. 이를테면 노명희(2006)에서와 같이 합성과 파생, 혼성 등과 같은 조어 유형으로 신어들을 분류하고 이들이 가지는 특성을 밝히는 데 논의를 집중한다. 신어의 조어 유형상 특징으로는 주로 혼성과 축약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는 신어의 추출 방법과 관련한 연구이다. 신어를 직접 포착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연구에서는 추출 방법에 대한 언급이 빠질 수 없다. 이수진·김예니(2014)에서는 《우리말샘》의 ‘신어 추출기’를 활용하여 신어 후보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걸러 내어 최종적인 신어 목록을 확보하는 내용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김일환(2014)에서도 2000년대 신문 기사로 구성된 ‘물결21’ 말뭉치(코퍼스)로부터 기존 사전 표제어와의 비교를 통해 신어 후보를 산출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들은 ‘신어 추출기’를 직접 활용하였느냐의 여부만 다를 뿐 언론 매체 중심의 텍스트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 사전의 표제어와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신어의 정착 과정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사실 신어의 정착 과정을 살피는 것은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생성된 신어의 쓰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구축된 빅 데이터, 특히 시기별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통해 특정 신어의 사용 여부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생성된 신어의 정착 여부를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는 정한데로(2017),

김일환(2014)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신어에 대한 최근 연구는 신어(주로 국립국어원에서 조사, 발표한 신어)의 조어상의 특성을 밝히려 하거나, 신어를 새롭게 추출, 발굴하거나 아니면 사용 양상을 추적하여 정착 여부를 규명하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성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의문은 과연 신어만이 가진 조어상의 독특한 특징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신어도 국어 단어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어만이 가진 조어상의 독특한 특징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단순히 조사된 신어만을 나열하는 것도 사전 편찬이나 신어 조사와 같은 특수 목적이 아니라면 별다른 흥미를 끌기도 어렵다. 독자 입장에서는 생소한 단어들을 접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신어 후보들이 무더기로 제시되기만 한다면 이를 참을성을 갖고 확인하는 것은 여간한 인내력으로는 어렵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3. 신어의 탐지

기존의 신어 추출은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기존에 출현하지 않은 어형을 포착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이는 신어 조사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형태는 변하지 않고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거나 기존 의미에 변화가 생긴 단어까지 신어에 포함한다면 이들을 포착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형태를 기준으로 신어를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과정을 거친다.

먼저 신어를 추출할 대상 텍스트를 수집하고, 이 텍스트로부터 어절의 유형과 빈도 통계를 산출한다. 이 어절 유형을 기존의 사전 표제어와 비교하여 사전 표제어에 등재되지 않은 어형을 신어 후보로 추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어를 추출한 김일환(2014)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 [1] ‘물결21’ 말뭉치로부터 연도별 명사 사용 목록 추출(673,117개 명사)
- [2] 기존 사전의 명사 목록과 비교 검토
- [3] 미등재 일반 명사 확보(563,789개 명사 추출)
- [4] 분석 오류, 고유 명사, 축약어, 일부 파생 명사 배제
- [5] 미등재어와 신어 판별(6,698개 선정)
- [6] 신어 후보 선정(1,240개 신어 명사)

김일환(2014)에서는 2000년대 신문 기사(2000~2012)로 구성된 ‘물결 21’ 말뭉치로부터 신어 후보를 추출, 선정하는 과정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67만여 개의 일반 명사 중 최종적으로 신어 후보로 선정된 단어는 1,200개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중간 과정인 [3]과 [4]의 단계를 거치면서 신어 후보는 급격히 그 규모가 축소된다(미등재 일반 명사의 0.22%).

이러한 과정은 이수진·김예니(2014)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 바 있다. 단지 이수진·김예니(2014)에서는 《우리말샘》의 신어 추출기를 사용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즉 이수진·김예니(2014)에서도 64,360개의 신어 후보를 확보한 후 신어 여부에 대한 판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전체 신어 후보의 약 0.35%인 227개만을 신어로 판정한 바 있다.

이러한 신어 추출 방법은 대규모의 언론 매체 텍스트를 신어 추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이후 사전 표제어와의 비교를 통해 미등재어를 추출하고, 이를 걸러 내서 신어 후보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들은 자동 분석 과정을 일부 도입하였으며 추출된 결과를 일일이 검토하는 과정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시기의 신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성과가 있었으나 일차로 추출된 미등재어를 일일이 검토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전

체 미등재어 가운데 최종적인 신어 후보로 0.2~0.3%의 신어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즉 최종 신어 후보를 산출하는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등재어 가운데에는 조사, 어미 결합형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미등재어의 정밀한 형태 분석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신어 추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까?

먼저 우리는 위에서 제시한 기존의 신어 추출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신어 후보가 중간 단계에서 걸러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을 모두 신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신어 관련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신어에 대한 다소 엄격한 기준이다. 이들은 신어와 미등재어, 유행어, 임시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신어는 엄밀히 말하면 새롭게 조어진 단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유행어, 임시어와는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다. 유행어, 임시어도 새롭게 조어진 것이라면 신어에 포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때 기존의 신어 관련 연구에서는 해당 언어에 정착할 만한, 임시적이거나 유행적인 단어를 배제하고 신어를 선정한다. 즉 새롭게 조어진 단어라고 하더라도 모어 화자의 언어 직관 혹은 사전 편집자의 판단에 따라 신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는 유행어나 임시어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판정일 수 있다. 신어에는 시기적인 요인도 포함된다. 작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는 올해의 신어가 되지 못한다. 즉 신어의 판정에는 시간성이 개입한다.

결과적으로 신어의 판정을 위한 복잡한 기준을 모두 도입하는 것보다는 우선 ‘신어’ 후보를 정확히 판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미등재어를 비롯하여 유행어, 임시어 등도 모두 신어 후보로 목록화하고 이들의 사용 양상을 추적, 관찰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신어의 추출이라는 개념보다는 ‘탐지’의 개념을 도

입할 것을 제안한다.

‘추출(extraction)’은 신어 후보가 되는 단어를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인 신어 후보를 확보하는 방식의 개념이라면 ‘탐지(detection)’는 기계적,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신어 후보를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개념이다. 즉 ‘추출’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전통적인 방식인 반면 ‘탐지’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신어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어 탐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될 것이 있다.

우선 빅 데이터가 필요하다. 신어의 추출에서도 빅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탐지’를 위해서는 빅 데이터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특히 신어 자료 추출을 위한 텍스트 빅 데이터는 품사 정보가 부착되어야 한다. 신어 후보들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들이므로 이들의 품사를 정확히 분석하여 정보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미등재어까지 처리할 수 있는 높은 정확성을 가진 품사 부착 도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어 탐지를 위해서는 텍스트의 생산 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규모만 큰 빅 데이터가 아니라 시기별로 균형 잡힌 롱 데이터(long data)가 필요하다. 대규모의 시기별 데이터에 품사 정보까지 부착된다면 신어 탐지를 위한 기반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빅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4장을 참조).

한편 신어 탐지의 개념을 확장하면 기존의 ‘형태’ 차원의 신어뿐 아니라 의미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 의미 차원의 신어도 포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즉 기존에 없는 새로운 어형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형태에는 변화가 없지만 의미적으로 신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탐지해 낼 수 있다.

이는 대상어의 문맥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음 (1)~(2)는 ‘텐트’와 ‘천막’의 예문들로서 이들은 모두 2010년 신문 기사에서 추출된 것이다.

- (1) 가. 노조는 이날 오후 부산 영도 공장 안마당에서 조합원 집회를 연 뒤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간부들이 농성에 들어갔다.(한겨레신문 2010. 1. 6.)
나. 천막에 참가자 다섯 명이 촛불 여섯 개를 쓸쓸히 들고 있더라고요.(동아일보 2010. 5. 25.)
- (2) 가. 푹푹딱딱 텐트를 치고, 야생에서의 저녁 식사 준비를 거뜬히 해내고, 아이들과 손잡고 자연 속을 거니는 아빠를 보며 아이들은 ‘우리 아빠 최고’를 외친다.(중앙일보 2010. 4. 30.)
나. 코오롱스포츠의 ‘메가펠리스’는 실속형 오토캠핑용 텐트로 5인용 이너(inner) 텐트의 탈부착이 가능해 내부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동아일보 2010. 5. 20.)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천막’과 ‘텐트(tent)’는 최근 들어 그 쓰임이 구별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취미, 여가를 위한 야외 활동으로는 ‘텐트’를, 시위나 농성, 구호를 위해서는 ‘천막’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두 단어의 주요 공기어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한 <그림 1>에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김일환, 2019).

<그림 1>만을 보면 ‘천막’과 ‘텐트’는 ‘설치’라는 명사만 주요 공기어로 공유할 뿐 공기하는 명사가 서로 배타적인 양상을 보인다.

장기간에 걸쳐 텍스트 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각 시기별 단어의 공기어 벡터를 계산하고 이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의미적인 신어의 탐지가 전방위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그림 2>는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일반 명사의 공기어 벡터를 구성하고, 이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사례 중 하나를 보인 것으로써, ‘서클’이 시기적으로 공기어의 변화가 매우 큰 단어라는 점을 공기어 벡터의 유사도 계산 결과가 제시해 준다(<그림 2>는 그 계산 결과를 시각화해서 표현한 것).

그림 1 ‘천막’과 ‘텐트’의 공기어 네트워크(2010년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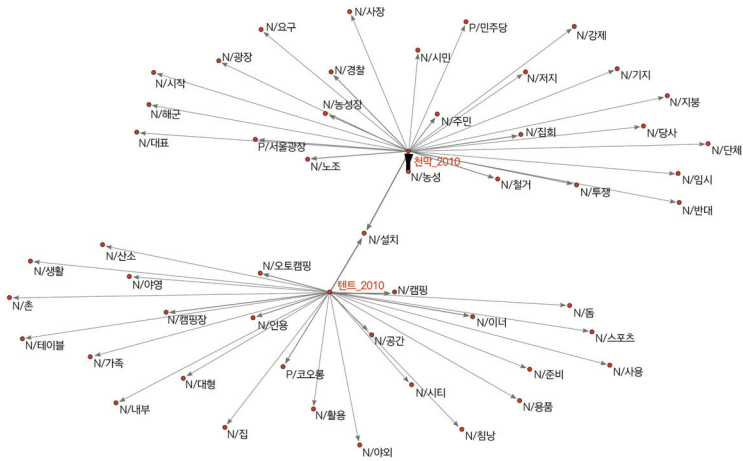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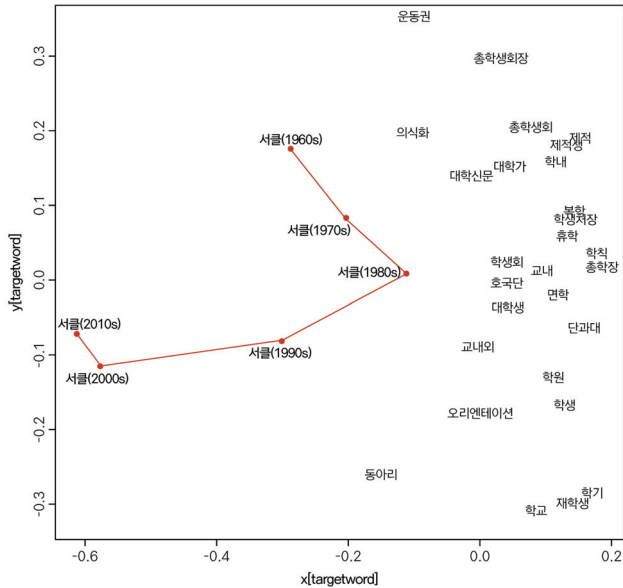


그림 2 '서클'의 주요 공기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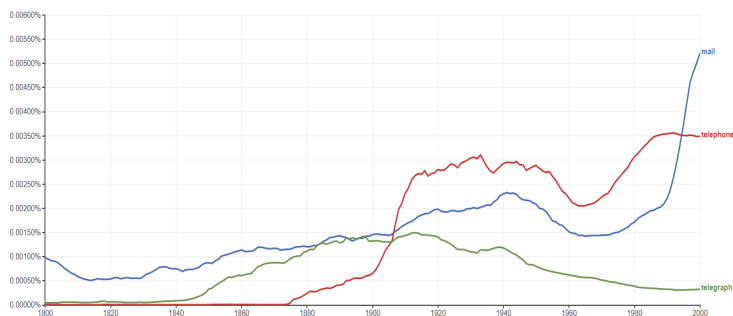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서클’이 주로 운동권과 관련한 단어들에 주요 공기어를 구성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동아리와 유사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서클’이란 단어의 쓰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4. 신어와 빅 데이터

신어의 추출이나 탐지를 위해서는 국어의 언어 사용 양상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대규모의 텍스트 빅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특히 ‘빅 데이터’ 시대에 서 규모의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구글(Google)에서는 1800년대 이후 출간된 책을 모두 디지털화하여 대규모의 텍스트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엔그램 뷰어(Ngram Viewer)는 주로 언어 연쇄의 사용 추이를 보여 주지만 이는 비단 언어 문제에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그림 3>은 ‘mail(메일)’, ‘telegraph(텔레그래프)’, ‘telephone(텔레폰)’의 시기별 사용 빈도를 엔그램 뷰어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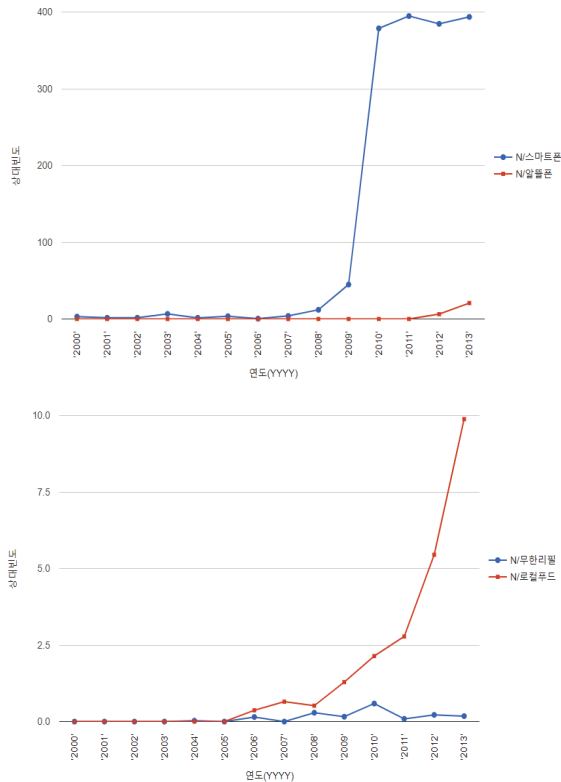
그림 3 구글(Google)의 엔그램 뷰어(Ngram Viewer)로 확인한 단어 사용의 양상



〈그림 3〉에서는 1800년부터 2000년까지 약 200년 동안의 세 단어의 사용 추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telephone(텔레폰)’은 1870년대 후반에 신어로 포착되었을 법하다. 200년 동안 인류가 생산해 낸 단행본 서적을 디지털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겠다는 구글의 엄청난 포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물결21’ 말뭉치가 시기별 언어 사용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림 4 ‘스마트폰’, ‘알뜰폰’과 ‘무한리필’, ‘로컬푸드’의 사용 빈도 추이



〈그림 4〉는 ‘물결 21’ 코퍼스를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웹 기반 코퍼스 분석 도구’에서 ‘스마트폰’, ‘알뜰폰’과 ‘무한리필’, ‘로컬푸드’의 사용 빈도 추이를 보여 준다. 이들은 모두 특정 시점에서 출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0년대의 신어에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사용 양상은 차이가 있다. ‘스마트폰’과 ‘로컬푸드’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알뜰폰’과 ‘무한리필’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물결 21’ 말뭉치는 비록 2000년대 주요 일간지의 신문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시기별로 단어의 사용 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국내의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대상 자료의 유형을 신문 기사를 넘어서 다양하게 확장하고, 시기별로도 범위가 확대된다면 신어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신문에 국한해서 본다면 100년(2020년은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창간 100주년이 되는 해) 동안의 신문 기사 빅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100년 동안의 신문의 언어 사용 추이를 보다 쉽고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즉 ‘다다익선’이 능사는 아니다. 검색 엔진에서 다소 후발 주자였던 구글이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배경에는 단순한 데이터의 규모를 넘어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의 확보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즉 신어 조사와 관련한 텍스트 데이터는 규모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데이터를 적절히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신어에 대한 최근 연구 경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텍스트 빅 데이터를 대상으로 신어의 추출과 탐지를 위한 몇 가지 방법과 사례를 제시하였

다. 또한 신어 연구를 위한 빅 데이터와 롱 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해 보았다.

신어를 연구할 때에 단순히 신어 후보를 추출하고 이를 일일이 비교하는 방법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데이터의 규모와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어의 추출이 아닌, 신어 탐지의 개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신어의 탐지를 위해서는 시기별 균형이 고려된 대규모의 텍스트 빅 데이터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밀하게 품사 정보가 부착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4차 산업 혁명은 데이터가 필수적인 시대이다. 특히 이 데이터는 적절한 방식으로 디지털화되어 있어야 하며, 많은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빅 데이터 시대의 신어라고 해서 기존의 신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단지 달라진다면 신어를 추출 또는 탐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기존의 방법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최근 떠오르는 기계 학습 방법의 한 유형인 딥 러닝(deep learning) 기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기별 텍스트 빅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고 이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사전 편찬자나 연구자의 주요 업무는 신어의 조사와 추출이 아니라 탐지된 신어 후보를 잘 정리하고, 기술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구글 수준의 텍스트 빅 데이터는 아닐지라도 균형 잡히고 시기별로 잘 정리된 텍스트 빅 데이터가 확보될 날이 머지않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 김일환(2014), “신어의 생성과 정착 - 신문의 신어 명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24, 98~125쪽.
- 김일환(2019), “인문학을 위한 신문 빅 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어문논집》 78, 중앙어문학회.
- 노명희(2006), “최근 신어의 조어적 특징”, 《새국어생활》 16-4, 31~45쪽.
- 도원영(2000), “국어 사전의 신어 처리”, 《한국어학》 34, 21~45쪽.
-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新語)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 295~326쪽.
-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 저, 이영래 옮김(2018), 《모두 거짓말을 한다》, 더퀘스트.
- 소강춘·이래호·주경미(201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신어 분과의 표제어 선정과 그 실제”, 《한국사전학》 20, 52~85쪽.
- 이도길·최재웅(2014), “물결21 코퍼스: 공개 웹 자원 및 활용 도구”, 《민족문화연구》, 64, 3~23쪽.
- 이수진·김예니(2014), “2013년 신어의 추출 방법론과 형태의미적 특성”, 《한국사전학》 23, 232~262쪽.
- 임홍택(2018), 《90년생이 온다》, 웨일북스.
- 정한데로(2017), “신어의 삶에 관한 탐색”, 《국어학》 83, 119~152쪽.
- 구글 엔그램 뷰어(Ngram Viewer)(<https://books.google.com/ngrams/>)
- 물결21 말뭉치(웹 기반 코퍼스 분석 도구)(corpus.korea.ac.kr)

‘새것을 녹여 내어 옛것을 풀어내는’ 학자 - 박인기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 교수



박인기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 교수

질문자 강남옥(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때 2019. 7. 9.(화) 곳 서울시 서초구

학자로서 박인기 선생님의 연구는 미래 각성의 울림으로 다가왔다. 국어 교육계의 후학들이 하나의 이론 틀에 얽매이려 할 때, 또는 기능 교육이나 문학 교육이나 문법 교육이나를 놓고 왈가왈부할 때, ‘말글’과 ‘말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학생의 삶과 언어’를 중심으로 놓고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해 왔다. 그 촉구는 한편으로 원론적인 것이지만, 논거는 언제나 최신 학술 논리로 정밀하게 조직되어 있었다.

문필가로서 박인기 선생님의 글은 고아(高雅)하다. 사회의 여러 문제, 특히 교육과 인성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고 사회의 ‘어른’으로서 정제된 조언을 내린다. 그간 출간한 수필집에는 향수가 묻어나고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와 정감이 넘친다. 내용은 어떤 면에서 옛것인 듯하나 다양한 지면과

매체를 오간다. 젊은 ‘폐북 친구’의 글에 따뜻한 공감의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담벼락에 옮겨 짧은 단상을 남기며 소통한다.

교육자로서 박인기 선생님의 수업은 늘 변화했다. 퇴임하는 학기까지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해 보려 하였고, 타협하지 않았다. 예비 교사들인 교대생들에게 토론식 학습법으로 수업을 운영해 보려고 학과를 가리지 않고 후배 교수들의 조언을 구했고, 시행착오와 실패 과정도 솔직히 고백하곤 했으며, 성공한 순간의 즐거움을 나누기도 했다. 그런 동시에 박인기 선생님의 강의는 엄격하고 메시지가 분명하며 언어 교육의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논어》의 〈위정편〉에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면 가이위사의(可以爲師矣)니라.”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다. 박인기 선생님을 보면 이 말은 “온신이석고(溫新而釋故)여서 가이위사의(可以爲師矣)구나.”로 바뀌어 감탄의 울림을 준다. 선생님은 새것을 따라잡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어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답을 내기 위해 진지하게 새로운 것들을 고찰하고 해석하고 응용한다. 그리고 정밀하면서도 따뜻한 언어로 항구적인 가치의 소중함과 이를 재발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정연하게 풀어놓는다.

2017년 정년 퇴임 이후에도 활발하게 연구와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인기 명예 교수로부터 학문과 교육의 여정에서 경험한 통찰, 국어 교육과 인성 교육에 대한 고견을 청하고자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 보았다.

강남옥 선생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먼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퇴임하신 후에도 학회에서나 다른 개인적인 일로 몇 차례 뵈었지만 이렇게 인터뷰 자리를 빌려 뵈게 되니 더 반갑고 또 흥미로운 기분이 듭니다. 먼저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여쭙니다.

박인기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로 노상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유를 잃지 않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양대학교에서 지난 1학기 대학원 강의를 맡아서 제가 가진 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 지점들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고, 또 젊은 신진 연구자들, 현장 교사들과 함께 교육적 실천에 대한 문제들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글을 읽고 쓰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읽고 쓰는 일은 나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어빈 알롬(I. Yalom)이 쓰고 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이해성 총장이 옮긴 《스피노자 프로블럼》이라는 소설을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이성(reason)에 대한 재발견의 기회를 주었다고나 할까요. 감성과 편견의 숨은 코드를 보았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만남과 소통의 힘이 사람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묵직하면서도 의미 있게 보여줘서, 밑줄을 치고 구석구석에 메모를 하며 읽어 나가고 있어요. 또한 퇴임 후에 내려고 묵혀 두었던 책이 두어 개 있어서 그 일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의 교육 문화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육 기관 운영에 참여도 하고 있고, 또 두루 자문 역할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옥 예상대로 여러 일들로 바쁘게 지내고 계셨네요. 선생님, 그럼 몇 가지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여쭙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교대에 재직하시면서 오랜 시간 예비 교사들을 양성해 오셨고, 교수가 되시기 전에는 교사로 재직하시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국어 교사로서 재직하실 때, 또 미래의 교사가 될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중점을 두신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박인기 제가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언어의 확장된 작용’을 경험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좀 딱딱하긴 한데,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학교 교

육에서 국어 교과가 담당하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기능적인 문식성(리터러시)이 궁극적으로는 삶 전체에 작용하는 언어 사용 문제를 고민하고 다듬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확장되어야 하고, 교육을 통해 이를 실천적으로 경험해 주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국어 선생이라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언어적 체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을 언어생활로 해석해 본다면 사회적으로는 ‘말 살이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우쳐 가는 것이고, 개인 내면으로 뻗어 나간다면 ‘말 사용의 묘미를 알고 그 지평을 스스로 넓혀 가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언어 기능의 문식성(리터러시) 위에 개인의 인성, 환경과 문화, 상황적 맥락을 통합하여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더 성숙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이 지평을 넓혀 간다는 맥락이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매체 안에서 기호, 하이퍼텍스트, 그림, 만화(카툰), 영상 등 다채롭고 복합적인 문식성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통합적이고 확장된 경험을 요구합니다. 저는 ‘말 살이 지식(경험)’을 유기적으로, 또 자기 주도적으로 확장하여 ‘말 살이의 지혜’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에 제 교육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글쓰기 체험’을 방법론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저 형식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만의 언어로 엮어 내는 과정 자체가 언어의 확장된 작용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니까요.

강남옥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어 교육은 수많은 변천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조금 전 선생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사회적 맥락,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국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강단에 계시면서 생각하셨던 국어 교육

의 변곡점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국어 교육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겪을 것이라 내다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인기 국어 교육, 더 좁게는 국어과 교육에서 가장 큰 변곡점은 저의 견해로는 분명 5차 교육 과정의 입안과 시행입니다. 변곡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대혁명과 같은 전기가 이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때 국어 교육은 기존의 흐름과 틀에서 명백하게 구별되는 몇 가지 이론과 방법론을 채택했습니다. 독본(讀本)과 정전(正典)의 관성이 강하던 시기에 기능주의 언어 교육관을 시도했고¹, 언어 학습의 인지학적, 교육 심리적 이론을 구체적으로 도입하여 지지대로 삼았습니다. 지식의 단순 암기를 지양하고 학습자 전략과 같은 측면들도 연습이나 활동에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구현하기 시작했지요. 이후에 6차와 7차 교육 과정, 또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 과정으로 바뀌어 나갔지만, 기본적으로 이들 교육 과정은 5차 교육 과정에서 설계하고 시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차 교육 과정이 1987년에 처음 고시가 되어서 1989년~1992년 사이에 각급 학교에 적용되었으니까 이제 대략 30년이 흘렀네요. 그리고 이렇게 한 세대 정도 유지된 국어 교육의 흐름을 다시 바꾸어 보려는 의식이 저는 지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건 조금 뒤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저는 이 5차 교육 과정 변혁기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교육개발원 국어 교육연구실²을 이끌던 실장님이 노명완 선생님(현 고려대학교 명

¹ 이 시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최초로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3종 교과서로 분리된 바 있다. 이러한 점은 이 5차 교육 과정의 기능주의적 사고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고 하겠다.

² 이 업무 영역은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연구실 및 교과교육연구실 등으로 이관, 재편되어 있다.

에 교수)이셨고, 이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 추이를 면면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자장(磁場)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명완 선생님은 매 주말마다 세미나를 열어서 연구원들과 함께 기능주의와 인지 심리학에 바탕을 둔 언어 교육 이론과 교수 방법론을 공부하고 그 필요성을 설파(說破)하시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문학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사회·문화화적인 접근 방식으로 국어 교육을 연구해 온 저에게는 그 논리가 생경하고 때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지만, 이것이 국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여하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990년에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처음 부임하고서, 저는 새 교육과정인 5차 교육 과정과 기능주의 관점의 국어 교육에 대해 마치 전도사처럼 열심히 설명하고 가르쳤어요. 저는 문학 교육을 전공했지만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기능주의적 국어 교육의 실천과 현장 적용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 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퇴임을 앞둔 시점에 만들어진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아까 질문한, ‘앞으로 전개될 국어 교육의 변화’를 말해 주는 사건이자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 과정을 막 접했을 때 느낌이, 그간 한 세대 이어져 온 정교한 기능주의 국어 교육의 패러다임 속에서 보자면 다소 성기고 막연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 역량’, ‘역량 중심’은 나올 때가 되었고 언젠가 나와야 했을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 교육 과정을 통해 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존재를 앞자리에 두는 단계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어 교육이 어학이나 문학에 관련한 지식 전수에 가까웠다면 5차 교육 과정을 전기로 언어의 기능적 특성과 교수 학습의 인지적 체계를 전면으로 세우게 되었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계기로 국어(언어)를 경험

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학습자를 우선으로 놓고 그 학습자가 급속도로 빨라진 사회 변화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차원의 지식(knowledge)과 수행(practice)의 역량이 필요한지를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온 겁니다. 교육 과정 적용의 초창기라 아직 과거의 교육적 관성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막연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과, 교과, 기능 등으로 촘촘하게 나누어진 분절적인 사고를 넘어, 융합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방향이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강남옥 선생님께서 마침 언급해 주신 ‘융합’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주제를 이어 조금 더 추가해서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문들과 융합하는 데에 국어 교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어 교육의 미래 전망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국어 교과가 다른 학문들과의 융합에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러한 목적의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기 우선 제 얘기가 다른 학문과 교과가 서 있는 자리를 좁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한 말을 누구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누구와 누가 합칠 때 누가 이기고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느냐와 같은 쟁점 논리가 없을 때 융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 사회의 경제 논리 안에서, 또 정밀한 미시 구조를 탐구해 가는 구조주의 분과 학문의 시대 안에서 교육은 각각의 학문 영역이 반듯한 병행이자 평행의 구조로서 개별 교과 학문을 접하고 학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그중 하나를 택해 전공 교육을 받아 각자의 분업 전문성을 갖추고 살아가면 됐지요. 시대의 관성은 교육에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 있고, 국어 교육 역시 여러 교과 교육 가운데 1/N로서 제도화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이렇게 교과가 글을 긋고 벽을 치고 있을 게 아니라 학습자(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교과를 재구성하고 재조직하는 과정에 작용을 해야 진정한 교육적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저의 이 생각은 요즘 자주 회자되는 4차 산업 혁명이나 그와 관련된 논의들로부터 촉발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근본적이고 인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받은 지식과 경험을 삶의 과정에서 통합하고 재편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언어’는 지식과 경험을 부단히 매개합니다. 사고 또한 언어로 매개되면서 발달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언어를 다루는 국어 교과는 경험의 융합, 지식의 융합, 학문의 융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매개적 기능과 작용’에 더 많은 교육적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읽기와 쓰기는 그 내적 과정에 매개 절차(프로세스)가 작동합니다. 국어과 교육이 아닌 교과에서도 읽기 활동과 쓰기 활동이 주류를 이룹니다. 과학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사회 현상을 배우는 장면에서도 읽기로 지식을 익히고, 쓰기로 생각을 정교화합니다. 그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술한 언어들이 매개의 그물망을 형성하며 학습을 심화해 가는 것입니다. 국어과 교육은 궁극으로는 그런 역량을 길러 주는 교과입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언어는 배움의 도구입니다. 언어로 학습의 경험을 쌓고 성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언어’로 삶을 평가하는 데에 이릅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언어만큼 교수의 도구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수자가 지식(기능)의 개념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수준 높게, 격조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도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안에는 학문이 전수되고 평가되어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제된 언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학문을 만나게 하는 소통의 매개로서 언어를 감당하는 교과

는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융합의 매개로서 언어는 말과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상 언어와 같은 넓은 차원의 언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교과는 삶과 인식의 융합에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어 교육’과 ‘언어 교육’ 사이의 차이를 짚어 내고 또 이를 명확히 벌려 둘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언어 교육’이라는 취지에 더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N로서의 교과인 국어과가 다른 교과와 배타적으로 갖게 되는 교육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교과를 매개하고 해석하고 전이시키고 재해석하는 차원에서 중시할 수 있는 언어 교육의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어 교과가 이 둘을 모두 내용론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교과 패권’ 식의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교과에서도, 예컨대 과학과에서나 사회과에서도 그 학문 언어와 교육 언어에 대해 국어과와 통합적으로 연구·실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국어 교과도 언어의 매개적 기능을 발달시키려면 다른 교과로부터 수용하고 받아들여 융·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융·통합은 누가 주도하고 누가 핵심이 된다는 취지를 넘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습자의 삶’을 그 지렛대로 써야 할 것입니다.

강남욱 선생님께서는 문식성을 두고 단순히 글을 해독하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서 읽기와 쓰기 행동이 갖는 의미와 가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식성의 의미를 보다 확장하여 인식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읽기와 쓰기의 의미와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박인기 제가 2002년 겨울인가에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을 국어 교육계에서 제기한 적이 있어요.³ 그런데 이 연구가 또 의외로 인용이 많

이 되면서 꾸준히 후속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애매하면 애매한 대로 서로 짐작하고 증명하고 채우면서 학술적 소통이 일어나긴 한 모양입니다. 써 놓고 보니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말도 많았지만, 제가 이걸 쓸 때 나름대로 궁리했던 생각은,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이해하고 표현한다고 할 때, 이 소통이 일어나는 ‘문화라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을까, 문화에 대한 소양과 문화의 맥락을 헤아리는 능력이 텍스트로 된 문자를 해독하는 좁은 의미의 문식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뒷받침하는 건 아닐까 하는 단상들이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계기가 있습니다. 문화 공부를 좀 하면서, 국어 교육의 현장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 ‘교육의 문화’, ‘언어의 문화’, ‘소통의 문화’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매체 언어니 통신 언어니 하이퍼텍스트니 하는 담론들이 문화를 제대로 짚지 않고서는 잘 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또 다른 계기로는,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당시 국어 교육계에서 국어 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이라는 게 상당히 뜨거운 주제여서 자연스럽게 제 관심이 흘러가기도 했지요. 이 ‘맥락’은 2007년 고시된 국어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에도 전격적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사족으로 말하자면 이 ‘맥락’이라는 용어는 내용이 명쾌하지 않고 교육적 내용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현장 반응들도 있고 해서 그 다음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퇴출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도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국어 교육에서 교육 내용의 한 범주로 강조했던 이 ‘맥락’은 문화적 문식성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혼

3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연구》 15, 국어교육학회, 23~54쪽.

히 언어를 통해서 삶과 인식을 넓혀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요체는 ‘맥락을 풍부하게 거느린 언어’를 만나면서 내 삶의 영토나 지도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식성,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말이 처음 개념화하던 때에는 언어 그 자체를 기준으로 써 왔는데 요즘 둘러보니 모든 지식 분야에 다 문식성(리터러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매체 문식성은 이제 아주 보편화되었고, 과학적 사고,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세계 시민성, 예술적 안목, 코딩을 위한 컴퓨팅 사고, 성인지 감수성 등등 다양한 분야에도 문식성이라는 말이 이제 흔히 따라오는 걸 봅니다. 이게 아까 대답한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거 같은데, 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문식성 교육(literacy education)’은 이러한 백화제방(百花齊放)과 다양한 문식성의 시대에 일종의 ‘허브 공항’이나 ‘협력 기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좀 거슬린다면, 수많은 문식성이 아름답게 협응할 수 있는 토양으로서 문화적 문식성의 역할을 기대해야 한다는 정도의 표현이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남옥 사회·문화적 소통에 필요한 문화적 문식성은 기존의 문식성보다 그 범주가 더 넓을 텐데요. 문화적 문식성이 국어 교육 현장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요?

박인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부분 부분 나누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문식성을 논할 때는 ‘문자’라는 부호 체계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염두에 두어 왔는데, 그런 접근은 사실 좁은 개념의 문식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읽고 쓰는 능력들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쌓아 나가느냐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었지요. 문식성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을 글을 아는 존재로만 국한

하지 말고, 문화적으로 참여하고 생산하고 수용하고 소통하는 그런 존재로 보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으로서는 문화적 참여와 소통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학생을 발달시켜야 하는 책무가 생겼지요. 지금 세상도 그렇지만 다가오는 세상은 자발적이든 그렇지 않은 내 삶 속에서 문화적 참여와 소통을 필수 불가결 한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말로 하니 좀 거창해서 그렇지,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문화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발달에 맞추어 문화적 각성이 현장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언뜻 현장과는 떨어진 문제라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국어 교육의 전문 인력, 전문 학자를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분포로 거느려야 국어 교육이 새로운 변화에 질적인 대응을 하면서 현장을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사를 양성하는 문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강남옥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한번 매듭을 짓고 이제 좀 다른 주제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청소년 언어 순화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서 욕설 문화가 두드러지는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기 우리 사회에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 문제가 잠복해 있습니다. 물론 욕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부추길 일도 아니지요. 권장할 일은 더더구나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마치 죄를 심판하듯, 너무 규범주의 관점에서만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욕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몰아서, 욕하는 청소년들을 징계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적’ 입장에서 이 현상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를 우리 문화

의 생태 변화에서 일어난 현상으로서 받아들이려는 관점을 가지면, 다소 유연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욕설 문화가 두드러지는 원인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원인 분석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회·문화적 현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현상은 청소년들의 현상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현대사에서 겪은 억압과 권위의 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분출되고 환류하는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권위적, 규범주의적 지도 관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생태와 삶과 문화를 이해해 주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문화주의적 접근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짐작하는 다른 원인 하나는, 형이상학적 원인일까요, 여하튼 철학적 원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삶은 지나치게 분화되어 있어서 삶이나 생활의 ‘총체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랄까, 다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삶의 총체성이 유지되고 담보되던 시절, 그러니까 신화의 시대에는 개체의 정체성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정체성 국면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렇게 살아지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학문을 닦는 지식인인 교수들도 어느 국면에서는 욕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불가피하게 지니고 살게 하는 사회입니다.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 분화가 심화되면서 삶은 더 고단하고, 짜증이 나고, 남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해받는 것도 더 어렵게 됩니다. 어느 현대인이나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세대가 바로 청소년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청소년

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고뇌하는 때기도 하고, 또 기성세대가 증폭시킨 파편화된 사회의 비인간적 가치에 더 나쁜 영향을 받는 때니까요.

강남옥 청소년 언어 순화와 관련된 캠페인이 그간 많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두드러지는 실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보다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인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청소년 언어 순화에 대해 생태적인 접근, 문화주의적인 접근을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일거에 뜯어고친다는 차원의 규범적 접근에 대해 반대해요. 제가 국가 차원의 법 제정을 얘기한 것은 욕설을 쓰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자는 차원도 아니었고, 요즘 종종 논의되는 차별 또는 혐오 금지법에서 다루는 차원과도 다른 것이었어요. 질문하신 사항은 아마, 2011년 말인가에 제가 교육부와 교총 등이 함께 마련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학술대회(콘퍼런스)’에서 제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제화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은 욕설을 금지하도록 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그런 법이 가능할 수도 없겠지만) 학생의 언어문화, 나아가 전 국민의 언어 습관을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지표 같은 것을 마련해 보고, 이 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법제화하고 공표하여, 국민 모두가 일정한 시기마다 한번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 조사를 하듯 ‘국민의 언어사용 실태 백서’를 낼 수 있도록 국어 기본법이든 어떤 법률에 명시해 준다면 그것을 근거로 삼아 정책도 개발하고 주무 기관도 움직이고 해서, 그렇게 우리의 언어 사용 문화를 돌아보며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는 경험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의 방법론으로서 실제 작업을 한 것이 대구 교육대학교 박창균, 윤준채 선생님 외 여러 선생님이 함께 고민하여 만든 ‘언어습관 자기진단도구’⁴입니다. 이러한 계량적 논리가 갖는 제한점도 있겠지만, 실천적인 노력으로서 회고해 보고 싶습니다.

강남옥 아, 선생님. 그랬군요. ‘법제화’카를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방법 외에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언어를 순화해 사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인기 청소년들은 어떤 면에서 욕설 언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해 주면서 시작하는 게 청소년 언어 순화의 방향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서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찬찬히 설명해 나가야 하지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이 드는 일입니다.

공이 드는 일이겠지만 한 가지 안정적인 방법은 ‘읽기와 쓰기를 고밀도로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청소년들의 욕설 문화는 그 출발점이 구어의 영역인데, 학생들이 읽기와 쓰기를 밀도 있게 경험하는 과정에서, ‘아, 뭔가 사용역(使用域)이 다른 언어의 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줍니다. 읽기에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마음이 가는 대로 문학 작품으로 얘기하면, 저는 좋은 문학 작품은 욕을 ‘극복’하게 해 준

⁴ 이 자료는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언어문화개선’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http://kfta.korea.com/language01.html>)

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일례로 홍명희의 《임꺽정》이나 황석영의 《장길산》은 말 그대로 욕의 향연, 욕 사전에 비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끝까지, 나름대로 자신만의 감동을 가지고 읽어 낸 학생들은 이 책을 읽고 자신이 온갖 욕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과 사회와 현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욕하는 인간’을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계급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제대로 읽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욕을 쓰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주변에 욕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나는 ‘책을 통해’ 이런 욕설 언어들을 다 봤지만, 그 욕에 담겨 있는 사회와 인간을 이해했을 뿐, 욕 그 자체에 이끌리는 수준은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자아를 대견스럽게 고양해 갈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밀도 있는 읽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천적인 방법은 학생들을 끊임없는 토론의 장 안으로 끌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토론에 무슨 절차를 두고 규칙을 얘기할 건 아닙니다. 교과와 상관없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면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 과정에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행위가 복합적으로 내포되고 어우러집니다. 우리 교육이 이러한 훈련을 좀 더 정밀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실천할 때, 더불어 이러한 토론의 경험 후에 체험 학습이 뒤따라올 수 있게끔 해 줄 때 저는 장면에 따라 장소에 따라 대상에 따라 언어를 정제하거나 순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옥 선생님께서는 교육자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국어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 외에도 인성 교육 실천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언어와 인성의 관련성, 그리고 인성 발달에 필요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인기 저는 인성의 발로(發露)가 언어이고, 평소의 인생관과 인성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그가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언어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왔고, 이를 저의 문제의식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성의 됬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기준 중 앞자리에 말과 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 교육 평가 방향은 말을 통해 한 사람에게 내재된 인성을 고찰할 수 있는 교육 기제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인성과 관계없이 꾸미고 분식(粉飾)된 언어들을 오히려 더 많이 주문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인성 발달에 필요한 요건으로 ‘글쓰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일견 보기에 좀 부자연스럽고 고루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사 장교로서 복무하던 시절 의무적으로 써야 했던 ‘일기 쓰기’는, 저 스스로의 지위, 신분, 사명, 책임을 반복적으로 짚고 저의 인간적인 됬됨이를 형성하는 어떤 방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진정됨이 없는 형식과 의무가 되지 않게끔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 때로는 인내하고 주어진 주제를 숙제로 안고 고민하는 과정 안에서도 인성 변화의 기제는 작동합니다. ‘쓰기’라는 행위가 갖는 자기 도야적 체험,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밀고 가는 수행, 그리고 쓴 글을 바탕으로 다시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토론하는 세 가지 층위가 삼위일체가 된다면, 인성을 가꾸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해요.

강남욱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저 역시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어 교육계의 원로이신 선생님께 오늘날 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박인기 국어교육 현장에서 여러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애쓰는 여러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교육이 또 한 걸음 한 걸음 달라지고 있고, 시대가 던지는 과제에, 국어 교육이 대답해 나가고 있다고 믿어요. 다만 질문을 하셨으니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얘기하자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분과적 지식에 대한 강조가 여전히 우리 국어 교육의 진로에 어떤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분과적 지식 체제 때문에 국어 교육 학자 집단에서 구성하고 있는 교육 과정 콘텐츠와 국어 교사 집단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 과정 콘텐츠가 유리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사 집단이 가진 콘텐츠는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어 교육의 이론과 협응하지 못하면, 자칫 일회적 실천이 되기 쉽습니다. 만약 국어 교육학이 지나치게 분과 분화된 체제로만 되어서 현장의 활동들을 이론적 원리로 통어하지 못한다면, 그 국어 교육학은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잘못된 입시 사태에 대하여 국어 교육은 어떤 미래 지향의 의제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국어 교육과 입시 정책의 선순환 호응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이를 교육 과정과 입시 제도 안에 녹아들게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문제 풀이식 교육이 국어 교육에서도 강력한 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어 교육은 교육학과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등의 소양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하고, 국어 교육의 내부 문제 중 국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들을 없애는 교육 과정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분과적 지식의 무게 때문이라면 분과적 경직성을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국어 교육이 사회와 더 폭넓게 소통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책 안 읽는 문화’가 저에게는 시급한 문제라고 여겨 집니다. 읽고 흥미하고 이를 나누고 토론하는 문화가 우리 언어생활의 향상을 위해,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인성의 함양을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미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분과적 지식에 대한 강조, 또 문제 풀이식 교육 등이 여전히 큰 영향을 갖는 국어 교육의 현실에서 다양한 읽기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은 자꾸 뒷전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강남옥 선생님 말씀을 통해 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 들었습니다. 긴 시간 여러 주제에 대해 진지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계신 연구나,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기 오늘 강남옥 선생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했던 첫 얘기로 돌아왔네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퇴임 후에 할 일로 남겨 두었던 두 가지 저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동(感動)’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가 언젠가 좀 더 두루 살펴보고 싶었던 주제는 ‘감동’의 요체와 실제, 그러니까 ‘진정한 감동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감동이 아닌 가짜 감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퇴임 후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국어 교육학에 몸담아 왔던 지난 시간을 반추하고 성찰해서 ‘교과의 미래’를 구상해 보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중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 사회는 지금과 같은 교과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과 형태는 생각보다 빨리 종말을 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자로서 분석하고 성찰해 온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교과의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 보고 싶습니다.

시인은 모국어 속의 이방인

박해현

조선일보 문학 전문 기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눈에 자주 띄는 시가 몇 편이 있다. 그중 김승희 시인의 시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가 있다. ‘가장 낮은 곳에 /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 (중략) / 그래도라는 섬에서 / 그래도 부동켜안고 /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이라면서 ‘그래도’라는 단어로 말놀이를 이어 간 작품이다. 그래도(島)라는 섬은 실제로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가상의 섬을 지어내고, 삶이 힘들더라 ‘도’ 살아 내자고 격려하는 시인의 메시지가 그래도 꽤 설득력 있게 울린다.

시력(詩歷) 45년이 넘는 김승희 시인은 2년 전에 낸 시집 《도미는 도마 위에서》에서도 언어유희를 발랄하게 펼쳤다. 시인은 “시라는 게 원래 말장난이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 시 〈좌파/우파/허파〉가 말장난의 대표작이다. ‘시곱바늘은 12시부터 6시까지 우파로 돌다가 / 6시부터 12시까지는 좌파로 돈다 / 미친 사람 빼고, 시계가 좌파라고,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 (중략) / 시곱바늘도 세수도 구두도 스트레칭도 /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은 돈다’라며 경직된 좌우 이념 대결의 세태를 조롱한 것. 시인의 말장난은 시인의 현실 감각을 대변하고, 풍자의 중요한 무기가 된다.

김승희의 언어유희는 시 〈무지개의 기지개〉에서도 두드러진다. ‘무지개는 비를 기억하지 않지만 / 비는 얼마나 무지개를 열애했던 것일까’라며 무지개가 피는 순간을 다뤘다. 비가 그치고 날이 갠 과정을 ‘기지개 켜는 무지개’로 의인화했다. 시 〈기도하는 사람〉도 패러디에 의한 말놀이를 보여 준다. ‘기도를 많이 하다가 / 기도 안에 갇힌 사람 / 기도 안에 갇혀 / 기도를 미워하게 된 사람 / 기도를 버린 사람 / 기도를 버리고 나니 / 아픈 만큼 기도가 보이게 된 사람’이라는 시행에서 ‘기도’는 베케트의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고도’와 연결된다. ‘고도’가 상징하는 절대 존재를 기다리는 기도를 올리지만, 그 소망의 집착을 포기할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시는 원래 말장난이지 않은가.”라는 게 김승희 시인만의 시론은 아니다. 말놀이를 즐기는 시인들은 원래 많았고, 요즘 한국 시단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의 발언 내용을 중시하는 리얼리즘이나 시인의 개인 감정 표현을 내세운 서정시의 전통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시적 자유를, 언어유희를 통해 구가하는 시인들이 늘어난 듯하다. 언어의 해묵은 의미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언어를 산출하려는, 시의 원초적 욕망을 활성화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는 것은 아닐까.

시가 일상 언어를 사용하되 그 의미의 일상성에서 벗어난 해방의 언어를 실천하는 언어 행위라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시인은 그 일상 언어의 틀 자체를 파괴하고 낯선 언어를 그 자리에 세우기도 한다. 최근 캐나다의 그리핀 시문학상을 받은 김혜순 시인은 신작 시집 《날개 환상통》에서 ‘새하다(문맥에 따라 ‘새가 되다’, ‘새처럼 날다’, ‘새를 울게 하다’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시인의 말놀이)’라는 신조어를 두드러지게 사용했다. ‘이 시집은 책은 아니지만 / 새하는 순서 / 그 순서의 기록’이라며 ‘새의 뺨을 만지며 / 새하는 날의 기록’이라거나 ‘새하는 여자를 보고서도 / 시가 모르는 척하는 순서’라고 했다.

김혜순의 언어 ‘새하다’는 격정적인 삶의 몸짓이기도 하다. ‘내 몸에서 내가 씨를 심은 새들이 울통불통 만져졌음, 해 / 네 피가 새의 피로 새로 채워졌음, 해’라는 시인은 음성은 격하고 탁한 소리를 낸다. ‘네 목구멍이 목마름으로 타들어 가듯 / 내 몸의 새가 타올랐음, 해 / 킁킁네 입술 밖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고 / 내 몸에 앉고 싶은 새가 더 더 더 달아오르는 나날/ 쿵쿵 울리는 심장의 등지에서 / 쿵 소리 한 번에 새 한 마리씩’이라며 이어지는 시인의 진술은 마치 주술처럼 들린다. ‘새’는 명사가 됐다가, ‘새로’처럼 부사로 날아올랐다가 ‘쿵’ 소리가 되기도 한다. ‘쿵’ 소리는 ‘새’를 느끼는 시인의 심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닐까. 그것은 낙하를 가리키는 일상적 의미보다는 도약을 알리는 고동(鼓動)을 떠올리게 한다. ‘쿵’ 하면서 ‘새’가 심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고, 새의 날갯짓은 쿵쿵거리며 삶을 그때그때 뒤흔든다. 새는 새로이 새로 태어난다.

‘가까이서 보면 새들은 모두 중력을 거슬러 움직이는 내 안의 물처럼 / 철썩철썩 한 바가지씩 공중에서 엮어진 물처럼 / 저마다 기형이다 / 새를 호명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 더 가까이서 보면 모두 전류에 지지지고 있다 / 물인 줄 알았는데 발광체다’라는 시행을 통해 새는 자유 의지의 힘으로 움직이는 하늘의 물로 그려진다. 그것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빛을 뿜어내는 현상으로 존재하는 움직임 그 자체다. 규정될 수 없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새는 새의 의미에서도 자유롭게 벗어나 있다.

김혜순 시집에 해설을 쓴 평론가 이광호는 상세하게 ‘새하다’의 뜻풀이를 내놓았다. “새라고 하는 명사에 ‘하다’라는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는 술어가 붙어 있는 것은 어색하다. 새가 주어가 되는 ‘새가 무엇을 하다’라는 문장이거나, ‘새가 되다’ 혹은 ‘새가 어떻게 하다’라는 문장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새하다’라는 구문에서 ‘새’가 주어인가 목적어인가도 분명하지 않다. ‘새’의 위치가 주어도 목적어도 될 수 없거나 혹은 둘 다 될 수 있는 이 모호함이 이 문장을 시적인 것으로 만든다.”

김혜순의 ‘새하다’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새처럼 날고 싶다’는 진부한 문장을 대신하기 위해 압축된 동사로 볼 수도 있다. 이상의 〈오감도(烏瞰圖)〉가 기존에 쓰이던 ‘조감도(鳥瞰圖)’ 중 한 글자를 바꿈으로써 단순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조감도가 아니라, 까마귀의 이미지를 살려 음울하고 기이한 세상의 풍경을 암시하였음을 떠올리게 된다. 김혜순은 이상에게 바치는 시를 쓰기도 했다.

‘김해경의 시에선 13인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고 / 김혜순의 시에선 아해들 머리 위로 13마리의 새가 하늘을 질주한다 / 13마리의 새가 땅에선 보이지도 않을 높이를 날아간다 / 8일째 먹지도 자지도 않고 날아간다 / 너무 높아서 까만 하늘을 날아간다 / 제1의 새가 무섭다고 그린다 / 제2의 새는 내가 죽었냐고 그린다 / 제3의 새는 설사가 터진다고 그린다 / 제4의 새는 한번 길게 울더니 떨어져 버린다’라며 씬 없이 이어진다.

정끝별 시인도 말놀이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시 세계를 펼쳐 왔다. 그의 신작 시집 《봄이고 침이고 덤입니다》는 제목에서부터 말놀이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시집을 펼치면 첫 시 〈춤〉의 한 시구가 책 제목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숨은 / 침이나 빤에 머뭍니다’라고 시작한 시인은 들고 나는 숨의 거처를 운동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정(靜), 공(空)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시인이 바라는 삶의 양상이기도 하다. 이어서 시인의 말놀이가 현란하게 펼쳐진다. ‘섬과 둠에 낸 한 째의 보름이고 / 가끔과 어쩔에 낸 한 째의 그름입니다’라는 것.

더 읽어 가면 ‘그래야 봄이고 침이고 덤입니다’는 한 행이 독자적으로 한 연을 이룬다. 게다가 ‘내 맘은 / 뽀이나 품에 머뭍니다 / 님과 남과 놈에 깃든 한 뽀의 감금이고 / 요람과 바람과 범람에 깃든 한 뽀의 채움입니다’라더니 ‘그래야 점이고 섬이고 움입니다’라는 것.

이미 확연히 드러난 것처럼 이 시는 ‘ㅁ’ 받침으로 이뤄진 음절의 말놀이에 흠뻑 빠져 있다. 시를 더 읽어 보면 ‘꿈만 같은 잠의 / 흠과 틈에 든 웃음이고 /

짐과 담과 금에서 멈춘 울음입니다'라더니 '그러니까 내 말은 / 두 입술이 맛 부딪쳐 머금은 숨이 / 땀이고 힘이고 참이고 / 춤만 같은 삶의 / 몸부림이나 안간힘이라는 겁니다'라며 마무리된다. 시인이 사랑하는 단어는 꿈과 잠이고, 흠과 틈, 웃음인데, 짐과 담과 금, 울음은 멀리하는 단어라는 것이다. 시인은 꿈과 짐 사이에 삶의 몸부림이나 안간힘이 있다고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선 등단한 시인 그룹에서 말놀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시인은 오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젊은 세대의 언어 감각에 의한 말놀이 향연을 풍성하게 보여준다. 그의 시 'ㄹ놀이'가 대표적이다. 그 부분을 읽어 보면 이렇다.

오늘도 너는 말놀이를 한다. 재잘재잘. 도중에 말이 막히면 너는 물을 마신다. 벌컥벌컥. 그리고 너는 물놀이를 한다. 침병침병. 도중에 배가 고프면 너는 미음을 먹는다. 허겁지겁. 그리고 너는 맛놀이를 한다. 우적우적. 도중에 배가 부르면 너는 몸놀이를 한다. 폴짝폴짝. 그리고 너는 망놀이를 한다. 호시탐탐. 도중에 도둑을 잡으면 너는 멋놀이를 한다. 찰랑찰랑. 그리고 너는 무(無)놀이를 한다.

시인은 말, 물, 미음, 맛, 망, 멋, 무로 이어지는 명사를 꾸미는 놀이의 풍경을 제시한다. 그의 말놀이는 꿈, 멸미, 맥, 먹, 멧, 맘, 마음으로 연결된다. '미음'의 무한한 확장 놀이는 '미음을 먹는다'처럼 동음이의어를 쓰다가 '마음을 먹는다'처럼 말의 변형을 덧붙이기도 한다. 시인이 설계하고 건설하는 'ㄹ'의 나라는 말과 말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어울려 놀이를 즐기는 말의 유토피아를 가리킨다. 그것은 '무(無)놀이'의 세계라는 점에서 아득하기만 하다. 오은의 'ㄹ' 사랑은 시집 서문에서도 확인된다. '꿀맛이 왜 달콤한 줄 아니? 꿀 맛도 아니고 꾸는 맛도 아니어서 그래. 미래니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라는 것이다.

오은의 말놀이는 시 '문법'에서도 활기차다. '존재하는 것이 거의 없으므

로 규칙은 견고하고 / 불규칙은 물결치므로 / 그 틈을 비집고 / 새삼스러운 문장이 튀어나올 때'라면서 완고한 문법의 틈을 비집고 물결치는 '새삼스러운 문장'을 지향하는 시인의 초상이 도드라진다. 시인이 머무는 언어의 방은 그리하여 '이 방이 조금 아름다워진다 / 이 방이 조금 이채로워진다 / 이 방이 이방(異邦)에 가까워진다 / 비로소'라는 것이다. 시인은 결국 모국어를 이방인(異邦人)처럼 구사하는 존재라는 얘기가 된다. 시는 모국어 속에서 외국어 혹은 외계어를 찾아내는 것이란 어느 시인의 말도 생각한다.

평론가 권혁웅은 오은의 말놀이 시를 크게 주목했다. “오은의 시는 현대의 도시락 폭탄이다. 흥겨운 피크닉 장소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또 다른 흥겨움이며, 시를 전복하는 시들을 전복하는 또 다른 전복이다.”라는 것. 그는 오은의 말놀이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언어를 통한 혁명이라고까지 평가했다. ‘표면의 서사가 이름 붙인 저 놀이가 세계를 해체하고 재구축하는 놀이라면,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시인의 말놀이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글쓰기’라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신영배 시인이 최근 낸 산문집 《물사물 생활자》가 그런 측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시와 산문의 경계를 벗어난 시이자 산문을 통해 ‘물사물’이란 낯선 단어를 곳곳에서 구사한다. ‘물사물’은 시의 물 이미지 속에서 나온 사물이며, 상상과 자유 속에 떠 있는 사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녀의 방에는 많은 물사물이 있다. 그 수는 어제 열었던 냉장고와 오늘 연 냉장고를 따로 세는 것과 같아서 한없이 부풀릴 수 있다.’라고 시작한 산문은 ‘물사물은 켤 수 없고, 명령을 내릴 수 없고, 거래할 수 없고, 소비할 수 없고, 하지만 꿈에 연결되어 있고, 하지만 정의할 수 없고, 하지만 생활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 물사물은 물(物)과 물 사이이기도 하고 물과 물의 연결이나 사물의 개별성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물(水)처럼 유동하기 때문에 고정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생활이고 삶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물사물’은 물의 이미지처럼 부드러운 여성적 삶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평

화를 그려 낸다. 산문집에 실린 ‘달빛물안경’은 이렇다. ‘달빛, 사물이 놓여 있다 / 물, 물빛에 옷을 벗었다’라는 도입부에서 사물은 저마다 틀의 경계를 벗어던진다. ‘물, 물의 옷은 희미하다. 보일 듯 말 듯하다. / 안경, 물로 꾸는 꿈이다. / 달빛물안경, 부드럽다. / 다시 달빛, 여자들이 쓰러져 있다. / 물, 물의 옷은 약하다. 약한 말이다.’

신영배 시인은 더 나아가서 ‘물랑’의 말장난도 내놓았다. ‘귀는 점점 물랑 해졌다 / 귓속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 귓속에서 새가 움직였다 / 점점 출렁였다 / 새가 울었다 / 물랑, / 그때 그녀는 나타난다 / “귓속에 든 새를 어디에 풀어놓을까?” / 그녀와 나는 걸어갔다.’

‘물랑’은 ‘물랑물랑’에서 나온 것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물랑물랑’은 ‘물렁물렁’의 제주 방언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영배의 시에서 ‘물랑’은 그 뜻 풀이에 갇히지 않는다. ‘물랑’은 그 발음의 어감처럼 유동적이고, 출렁이는 말이다. 그렇게 물결치는 삶이기도 하다.

식민주의적 건축 용어에 대한 짧은 생각

최우용

건축가, 자유 기고가

1

식민 36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혹한 것이었다. 한 세대에 해당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의 자의식은 심각하게 쪼그라들었고, 주체적 삶을 향한 당연한 욕망은 철저하게 억압받아야 했다. 굴종과 굴욕의 시간. 이 암흑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말을 말하지 못했고 우리글을 쓰지 못했다. 불현듯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를 억압하기 시작한 외부자/타자(他者)들로부터, 그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시작되었으나, 억압하는 타자에 대하여 억압받는 자아(우리)는 주체적 삶을 철저히 부정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광복은 찾아왔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기어코 오고 말 것이라는 한 시인의 소망처럼, 36년의 가혹한 겨울은 가고 해방의 봄날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렇지만 관성은 무서운 것이었다. 관성은 말 그대로 계속 그러하려는 상태나 성향 등을 의미하는데, 광복 후 반세기가 훨씬 지났건만 식민주의의 관성은 아직도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그중 우리말에 늘어붙어 있는 식민의 관성은 일상다반사로 확인된다. 올해 초 광복절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국회의 공적 자리에서 한 국회 의원이 ‘겐

세이' 놓지 말라고 호통쳤다. 본인이 의사 발언 하는 데 훼방(견제) 놓지 말라는 것이다. 겐세이(牽制, けんせい)라? 이 말은 필자도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킬킬거리며 자주 주고받는 용어인데, 이와 같은 무의식적인 일본어 사용의 예는 때와 장소(국회나 당구장)를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고관대작과 범부)를 막론하며, 남녀와 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후로도 이 국회 의원은 국회에서 '야지(やじ, 야유)' 놓지 말라고도 말했고 '뽀빠이(ぶんぱい, 분배)' 해도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와 같은 일본어 사랑은 비단 앞서 말한 국회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회 의원들의 발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회에서 오가는 언어적 수준과 품격이 여염의 그것보다도 결코 높지 않다는 사실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기스(きず, 흠집)' 나지 않게 조심하고 '단도리(だんどり, 채비)'를 잘해야 하며 기름을 '만땅(まんタン, 가득)'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식민주의적 언어생활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역사적 물이해와 언어적 감수성의 결여 그리고 무비판적 언어 습관은 우리말을 소외시키고 병들게 한다.

2

필자는 건축 설계를 업으로 먹고사는데, 때때로 건축 관련 글을 써서 이런 저런 매체에 기고하기도 하고 그런 글들을 모아 단행본 책을 내기도 한다.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글 쓸 일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 실무를 하고 또 글을 쓰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건축 분야의 식민주의적 잔상과 우리말 소외 현상이 다른 분야 못지않게 뚜렷하다는 사실이다.

구한말 전까지 우리말에 '건축(建築)'이란 단어는 없었다. 건축이 없었다고? 그렇다. 오늘날의 건축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영조(營造), 영선(營繕), 영

건(營建) 등의 단어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기존 용어들을 대신하여 건축이란 단어가 일본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이식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건축이란 단어를 조어(造語)했는가?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전후로 하여 서구의 건축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서구어 ‘아키텍처(architecture)’를 새롭게 번역할 필요성을 느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목조 가구식 구조(木造架構式構造, 나무 부재를 맞추고 이어서 구조물을 완성하는 방식)의 영조와 서구 석조 조적식 구조(石造組積式構造, 돌을 쌓아 올려서 구조물을 완성하는 방식)의 아키텍처 상호 간에 차이가 현격했기 때문인데, 이는 비단 구조물을 만드는 재료와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서구와 동아시아의 건조물에 대한 문화적 양태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었다.

1894년 일본의 저명한 건축 사학자이자 건축가인 이토 주타(伊東忠太) 등에 의해 건축이란 단어의 사용이 확정되었고, 이 건축이 바다 건너 조선으로 넘어왔다.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그들 식민의 땅 조선 반도를 효과적으로 착취하고 또 수탈하기 위해 새로운 물리적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리의 물리적 환경은 개벽과도 같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구의 건축이 일본을 통해 들어와 우리 삶의 기반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이다.

개화기 대부분의 서구 문물이 일본을 통해 이식된 것처럼 건축 분야 또한 그러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은 그 단어 자체부터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였다. 우리에게 ‘건축’의 역사가 이러한진대, 건축 분야의 식민주의적 잔재와 잔상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넓고 깊다. 그중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일본식 용어의 사용은 특히 고질적이라고 할 만하다. 해방 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건만,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일본식 건설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필자는 건축 설계를 하고 도면 그리는 일을 주업으로 하지만, 그러한 설계 도면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공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일 또한 중요한 업무

로 삼는다. 90년대 후반에 대학 교육을 받은 필자는 일본식 건축 용어¹가 아닌 우리말 건축 용어로 전공 공부를 했다. 1990년대 전후로 발간된 《건설 표준 용어 사전》 등의 성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리라.

그러나 우리말 건축 용어로 교육받은 필자 또래의 건축학도들은 졸업 후 현장 실무를 접했을 때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껴야 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는 온통 일본식 건축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실 책상물림으로 컴퓨터 화면만 보며 도면을 그리던 나는 첫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한다. 첫 현장에서 ‘오야(おや, 현장 시공 책임자)’가 하는 말을 필자는 충격적이게도 거의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일본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그야말로 나에게는 해독 불가능한 외국어였던 것이다. 현장에 나타난 초보 설계 실무자에게 나이 많은 노련한 현장 소장은 ‘전문’ 용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며 초짜의 기를 초장부터 죽였다. 현장에서 잔뼈와 통뼈가 모두 굵은 현장 소장은 그렇게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파릇한 건축인에게 이 바닥의 식민주의적 관성의 공고함과 무서움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보통 이때부터 초보 건축인들은 정글과도 같은 건설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본식 현장 용어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왁자한 건설 현장에서 거칠 대로 거친 현장 소장이나 인부들을 상대하는 데 ‘전문’ 용어를 모르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일본식 건설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한 《건설 표준 용어 사전》 등이 오히려 일본식 용어를 습득하기 위해 거꾸로 이용되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필자는 사전까지 구매했어서 공부하는 부지런한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공사 현장의 앞뒤 상황 속에서 특정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역으로 추론하는 방식으로 일본식 건설 용어를 익혀 나갔고, 지금은 어지간한 일본식 건설 용어는 거의 다 알고

¹ 본문에서 사용하는 ‘건축 용어’, ‘건설 용어’ 등은 서로 같은 의미로 문장과 문맥에 따라 혼용하였다.

있다고 자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나는 현장에 나가면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말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번갈아서 사용한다. 현장 소장이나 인부들의 나이가 지긋해 보이면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고 젊어 보일 때에는 우리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모든 경우에 우리말 용어로 현장 업무를 보고 싶지만 앞서 말했듯 관성은 무서운 것이다. ‘규준틀(規準틀, 건축물의 윤곽을 바닥판 등에 표시하는 기준이 되는 선)’이란 용어를 들어 보지 못한 상대에게는 ‘야리가다(やりかた)’라고 말해야 업무 내용을 수월하게 지시할 수 있고, ‘할석(割石, 돌이나 구조물 따위를 갈아 내거나 잘라 내는 일)’이란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에게는 ‘하스리(はつり)’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울화가 치미는 것은 우리말 용어를 사용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무시당하기 십상인 현장의 분위기다. 나는 일본식 건설 용어가 익숙해질 때쯤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도 우리말 용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어린 놈’, ‘똥도 모르는 놈’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일부러 일본식 용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건설 현장의 극도의 보수성과 식민주의적 관성은 실로 기가 막히고 말문마저 막히게 하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필자와 같은 끼인 세대 건축인들이, 문화적 충격 속에서 양쪽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주워 삼킨 덕분에, 요즈음 건축 실무에 들어오는 후배 건축인들이 현장에서 우리말 건설 용어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필자와 같은 세대의 건축 실무자들이 의식적으로 우리말 용어를 사용할 때나 가능하다. 습관이 무섭고 관성이 무서운 것처럼 시나브로 입에 뱀 일본식 용어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그야말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언어는 사고의 도구이며 수단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는 우리말을 생각의 근간으로 삼고 또 생각의 도구로 활용한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는 한 뼘의 길이만큼도 생각을 전개해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 우리말로 생각할 때 보다 명확한 사고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야리가다’라는 단어의 습관적 사용은 우리말 건축 용어인 ‘규준틀’이 소외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다. 그것은 일본어가 우리의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는 ‘야리가다’라고 말할 때보다는 ‘규준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규준(또는 기준)이 되는 틀(또는 열개)’이라는 사실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틀 또는 열개가 빗나가서는 안 되며, 건축 공사의 도입부에 불과하지만 매우 중요한 공정임을 ‘규준틀’이라고 말할 때보다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또한 ‘테나우시(てなおい)’라고 말할 때보다는 ‘재시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기존 공사의 수고와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임을 보다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재시공이란 단어가 반복 언급될 때, 테나우시라고 말할 때보다 사안의 위중함이 보다 명확하게 부각되고 다시 시공하는 수고로움을 피하기 위해 좀 더 꼼꼼히 상황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작고하신 황현산 선생님은 학술 용어를 번역 없이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학술 분야의 세태를 걱정하셨다. 선생님은 이러한 원어 의존으로 우리말 전체가 학문으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모든 지적 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걱정하셨다. 지당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비단 학술 용어뿐이겠는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일본식 용어와 표현은 우리말을 소외시키고 반성적 사고를 더디게 한다. 이런 언어적 관성은 무서우리만큼 지금 여기에도 선연하여 일상의 많은 곳에서 식민주의적 언어생활이 반복되고 있다. 도입부에 말한 ‘젠세이’나 ‘야지’, ‘뽀빠이’,

‘기스’, ‘단도리’, ‘만땅’ 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지면에 다 쓰기 어려울 만큼 그 예는 차고 넘친다. ‘야리가다’나 ‘하스리’나 ‘테나우시’ 등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식민주의적 용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말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공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다. 오히려 우리말 용어가 무시당하고 욕보는 것이 건설 현장의 민낯이다. 오죽하면 세부적인 용어들에 대한 사전이 나오겠는가?

무비판적 언어 습관으로 우리말은 우리에게서 격리되고 소외된다. 그럴수록 우리 사고는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말로 생각할 때 우리는 보다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건축 현장 용어 뿐만 아니라 건축 학술 용어, 그리고 필자가 생활하는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말을 쓰고자 한다. 서구어에 대한 남발과 의존은 지적 열등감에 그 근본이 있으며, 일본어에 대한 습관적 사용은 우리말의 오염과 사고의 저급함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를 포함한 필자 또래와 후배 건축인들이 오로지 우리말 건축 용어만으로도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바란다. 때와 장소,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우리의 생각을 쓰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것으로 이 짧은 생각의 글을 마칠까 한다.

일본의 언어 연구 사전

송영빈

이화여자대학교 일본언어문화연계전공 교수

1. 들어가며

일본 사전의 시작은 682년에 편찬된 《니이나(新字)》라고 한다. 다만 현재 실물은 전해지지 않고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기록으로만 등장한다.¹ 이후 여러 형태의 다양한 사전이 약 1300년 이상 일본에서 만들어졌지만 현대적 의미의 일본어 연구를 위한 첫 언어 연구 사전이 나온 것은 1955년이다.² 당시 ‘국어학회’라는 이름으로 《국어학사전(国語学辞典)》이 나온 것이 그것이다.³ 이후 이를 계승 발전시킨 《국어학대사전(国語学大辞典)》이 1980년 9월 나왔다. 2004년 ‘국어학회’가 ‘일본어학회’로 이름이 바뀌고 2018년 10월에 일본어학회라는 이름으로 《일본어학대사전》이 새로이 출판되었다. 1944년 설립된 ‘국어학회’가 ‘일본어학회’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국어’라는 명칭이 갖는 제국주의 언어로서의 성격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일본어도 세계의 여러

¹ 일본어학회 편(日本語学会編)(2018), 《일본어학대사전(日本語学大辞典)》, 동경당출판(東京堂出版), 466쪽.

² 이 글에서는 ‘언어 연구 사전’이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술어사전(術語辞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³ 1944년 일본에서는 ‘국어학회’라는 명칭으로 일본어 연구를 위한 학회가 설립된다. 그 후 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전이 이 사전이다.

언어 중 하나라는 인식을 토대로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⁴

이 세 사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같은 학회에서 발간한 사전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각 사전마다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학회 명칭의 변화가 실질적인 연구 내용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1955년 당시의 일본어 연구와 현재의 연구 환경이 언어학을 포함한 인접 학문의 발달로 크게 변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언어학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를 갖는 《언어학대사전》이 1988년부터 2001년에 걸쳐 총 7권으로 일본에서 발간된다.⁵ 서구 언어학에 비해 언어학 이론이 많이 나오지 않은 일본 상황을 생각할 때 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할지 흥미롭기만 하다.

한국에서도 1945년 이후 언어 연구를 위한 사전이 편찬된다. 1971년 허웅, 박지홍 공편 《국어국문학사전》을 시작으로 1973년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편 《국어국문학사전(國語國文學事典)》이 나왔고, 1982년에는 이정민, 배영남 공저 《언어학사전》이 나왔다.⁶ 1995년에는 국어학만을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 사전인 《국어학사전》이 한글학회에서 나왔다.

한국과 일본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 사전을 보면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일본어학회 사전이 약 70년 동안 걸친 학계의 연구 변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전이라는 점에서 연구사적인 의미가 더욱 새롭게 다가온다. 이 글에서는 1955년 《국어학사전》에서 2018년 《일본어학대

4 일본어학회 누리집 참조 (<https://www.jpling.gr.jp/kaiin/osirase/osirase2000-2003.html#forum>)

5 가메이 타카시·고노 로쿠로·치노 에이치 외 편(亀井孝·河野六郎·千野栄一他編)(1988~2001), 《언어학대사전(言語学大辞典, 第1巻-第7巻)》, 삼성당(三省堂). 이 사전은 현재 전문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https://joao-roiz.jp/SLE/> 참조.

6 이 사전은 전통 언어학은 물론 당시 언어학에서 가장 주목받던 변형 생성 문법도 포괄한 사전이다. 일본에서는 변형 생성 문법의 이론을 담은 사전이 1971년 야스미 미노루(安井稔) 편 《신언어학사전》이며 전통적인 언어학 이론까지 포괄한 사전이 나온 것은 1988년 다나카 하루미(田中春美) 편 《현대언어학사전》이다.

사전》까지 일본어학회에서 나온 세 권의 사전에 나타난 일본어 학자들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면서 1945년 이후 일본어 연구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언어 연구 사전 편찬

2.1. 《국어학사전》

1955년 6월 당시 국어학회라는 이름으로 《국어학사전》이 발간된다. 당시 편집 위원장 겸 국어학회 대표 이사였던 도쿄대학 도키에다 모토키(時枝誠記) 교수는 이 사전의 ‘간행글’에서 국어학회 설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⁷ 이하 이 글에서 인용문은 모두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국어학은, 그 오랜 전통과, 그간 연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학회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 연구자가 서로 돕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 한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에 전국적 학회가 하루라도 빨리 탄생하게 되기를 절실히 바란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 박사의 열의는 널리 전국 연구자의 뜻을 움직여 전쟁이 한참인 어려운 시절 설립 준비가 착실히 이루어졌다. 하시모토 박사가 회장으로 추대받아 학회가 정식으로 성립, 발족된 것은 1944년 3월 30일이었다.

⁷ 국어학회 편(1955), 《국어학사전》, 동경당(東京堂), 1~2쪽. 도키에다 모토키는 1900년에 태어났다. 소쉬르 언어학에 대해 비판하며 언어를 인간의 표현 활동으로 정의하는 ‘언어 과정설’을 주장했다. 언어 과정설에 대해서는 1941년 발간한 그의 책 《국어학원론 언어과정설의 성립 및 전개(国語学原論 言語過程説の成立とその展開)》,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을 참조하기 바란다. 핵심 내용은 소쉬르의 랑그(langue)와 파롤(parole)로 표현되는 언어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에 반대하여 인간이 중심이 되는 표현 활동 속에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당시 서구 언어학에 치중하던 연구 풍토를 부정적으로 보고 일본어를 설명하기 위한 독자적인 언어학 이론을 제창한 것이다. 그는 1927년 경성제국대학 조교수, 1933년 교수를 거쳐 1943년 당시 동경제국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활동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의 ‘국어학’이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는 기술이다. 각주 7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는 서구 언어학과는 달리 독자적인 ‘국어학’ 연구의 전통과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점은 아래에 인용하는 이 사전의 기본 성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어학사전》은 1954년 국어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학회의 발걸음을 기념하고 앞으로 국어학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집 간행이 기획되었으며 이 사전의 목표와 편찬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8,9}

이 사전의 목표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는 국어 연구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나아가 최신, 최고의 학문적 성과와 이에 대한 다른 생각과 학설까지도 공정한 입장에서 기술, 소개하는 데 있다.

즉 서양의 언어학보다는 그동안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국어학’ 연구를 이 사전을 통해 망라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 사전 편집 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사전의 항목 기술 범위에 대한 언급이다.

넓은 시야에 입각해서 언어생활과 국어 교육, 국어 문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구하여 언어학 일반, 기타 인접 과학 항목도 수록하여 전문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과 동시에 널리 일반인에게 이 분야 학문의 문을 개방하는 것을 꾀했다.

이 사전은 기본적으로 소항목을 일본어 가나순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이것

⁸ 위의 책, 2~3쪽.

⁹ 그는 경성제국대학 재직 시절 한국에서의 일본어 보급에 관한 일을 하게 된다. 「조선에서의 국어 정책 및 국어 교육의 장래(朝鮮における国語政策及び国語教育の将来)」(1942), 「조선에서의 국어 실천 및 연구의 제상(朝鮮に於ける国語 - 実践及び研究の諸相)」(1943)에 당시 그의 일이 소개되어 있다. 도키 에다의 식민지 시대 활동과 학문에 대해서는 소상한 연구가 있다. ‘야스다 도시야키(安田敏朗)(1998), 《식민지 시대 ‘국어학’>(植民地のなかの「国語学」)》, 삼원사(三元社), 103~166쪽’을 참조.

이 갖는 나열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소항목에 해당하는 상위 분야를 따로 설정하고 있다. 그 분야는 음성·기호, 언어·언어명, 음성(음운)·문자·문법·문체·어휘, 방언·위상어(位相語), 언어생활(읽고 쓰는 것 등을 포함)·언어 문제·국어 문제 등이다. 예를 들면 소항목 ‘악센트’의 경우 해당 분야를 [음성]이라고 표제어 뒤에 명시하는 식으로 상·하위 관계를 이용하여 가나 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도키에다의 글에서 ‘언어생활’, ‘국어 교육’, ‘국어 문제’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1945년 일본 패전 직후 일본이 민주 국가 설립을 위해 일본어 개혁을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생각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1945년 이전 일본어 표기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자의 운용 상황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교육하기 위한 표기 개혁이 필요했고 한자 제한, 혹은 폐지까지도 고려할 심각한 상황이었다. 즉 언어 근대화를 위한 한자 개혁이 필요했었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어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1948년 국립국어연구소가 설립된다. 일본인의 읽고 쓰기 생활 속에서 어떤 한자와 어휘가 쓰이고 있는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연구가 이때 시작되는데 이를 ‘일본인의 언어생활’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연구 결과를 갖고 ‘국어 교육’과 ‘국어 문제(주로 한자 제한)’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자는 것이 당시 주요 연구 주제였다. 도키에다가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당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¹⁰ 이 사전의 기술 항목은 총 2,270개이다.

10 ‘언어생활’ 조사에 대한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 그동안 수행한 조사 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다(https://db3.ninjal.ac.jp/publication_db/). 일본어의 개혁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는 ‘노무라 마사야키 지음, 송영빈 옮김(2004), 《한자의 미래》, 커뮤니케이션 북스, 90~100쪽’ 참조.

2.2. 《국어학대사전》

《국어학사전》이 나온 지 25년 만인 1980년 9월 《국어학대사전》이 발간된다. 이는 학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74년에 기획된 것이다. 이 사전은 《국어학사전》이 갖고 있던 소항목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중항목 중심주의로의 변화를 꾀한 것이 특징이다. 소항목 중심주의는 도키에다의 앞선 글에서도 나타나듯이 “국어 연구의 모든 것을 요약”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사전은 소항목 단순 나열에서 벗어나 기술 항목을 상하 관계에 의해 체계화(중항목)하고 소항목 중에 서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일하였다. 예를 들면 ‘동의어/대의어(對義語)’, ‘통역/동시통역’ 등을 하나로 합쳐 이들을 부록에 제시한 색인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소항목은 《국어학사전》 2,270개에서 1,217개로 줄게 되었다. 특히 이전 사전에서 많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던 국어 교육과 문학 관련 항목을 대폭 삭제한 것도 항목 수가 줄어든 이유이다.

이 사전의 또 다른 특징은 서구 언어학의 이론을 적극 수록한 점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변형 생성 문법에 의해 언어학 연구도 정적인 구조주의에서 동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 사전의 ‘후기’를 담당한 쓰키시마 히로시(築島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¹

근년 발전하고 있는 계량 국어학, 구조 언어학과 생성 문법과 같은 미국 언어학, 언어 지리학과 같은 관계 항목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에 의해 서구 언어학 이론이 《국어학사전》에 비해 대폭 수용된 것은 사실이며 문학과 국어 교육 항목 등이 대폭 삭제되면서 본격적인 언어 연구를 위한 사전으로서의 전문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이 사전도 역시

¹¹ 국어학회 편(1980), 《국어학대사전》, 동경당출판(東京堂出版), 1183쪽.

시대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국어학사전》 편집 위원과 집필자의 연령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던 것이 《국어학대사전》 기획 단계인 1974년 시점에서는 40대 후반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는 쓰키시마의 사전 후기에서처럼 연령이 다소 높아진 것 외에 사전 편집을 담당할 학회 구성원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그들의 ‘국어학’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면서도 언어학 이론의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언어학 연구의 성과를 담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¹²

이 사전이 발간된 1980년의 상황은 1945년 이후 연구자의 급증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사전에 담아야 했던 시기였다.¹³ 그러나 편찬 시기가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와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에 의한 일본어 및 외국어와의 비교·대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전은 앞의 사전과 마찬가지로 ‘국어학’을 담는 그릇이라는 성격이 여전히 강했다. 따라서 이 사전은 1955년 《국어학사전》을 보다 확대 정교화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전이 갖는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었다. 1980년 발간된 이 사전은 대학에서의 일본어 관련 학과 설치와 연구자 급증이라는 상황 속에서 1999년 7월 당시 제 10판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만큼 일본어 연구자에게는 필수 도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전이 활용되던 시기는 ‘국어학’과 ‘일본어학’이 공존하면서도 ‘일본어학’의 성격과 연구 영역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연구자들은 역사적 연구가 중심을 이루는 ‘국어학’에서 벗어나 ‘일본어학’ 연구 사건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¹² 위의 책, 1184쪽.

¹³ 이 시기에 ‘사토 키요지 편(佐藤喜代治編)(1977), 《국어학연구사전(国語学研究事典)》, 명치서원(明治書院)’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1945년 이후 대량으로 발굴된 일본어의 역사적 자료가 충실히 수록된다. 한편 기술 항목은 대항목주의를 채택하여 가독성이 높아졌다.

2.3. 《일본어학대사전》

1988년 긴다이치 하루히코(金田一春彦) 외 편 《일본어백과대사전(日本語百科大事典)》이 나온다.¹⁴ 이 사전은 일본어를 연구하기 위한 사전이지만 ‘국어학’이 아니라 ‘일본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의 일본어 연구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사전은 전통적인 역사언어학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언어학 이론에 기초하면서도 일본어의 특성에 기반한 연구를 담은 사전이다. 사전의 기술 항목을 크게 총 22장으로 나누고 그 아래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이라는 식으로 세분화하여 학문적 체계성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배열했다. 이 사전의 발간은 ‘국어학’에서 ‘일본어학’으로의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2000년 즈음부터 일본 국어학회 내에서는 현대어를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와 인접 학문, 특히 컴퓨터로 일본어를 연구한 결과를 반영한 일본어 연구 사전 편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¹⁵ 2004년 ‘국어학회’가 ‘일본어학회’로 명칭이 변경된 후 새로운 사전 만들기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대두되면서 2006년부터는 학회 이사회에서 학회 창립 70주년 기념(2014년) 사업으로 새로운 사전 편찬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2007년 당시 일본어학회 회장이던 노무라 마사야키(野村雅昭) 교수 주도로 2008년도부터 사전 편찬이 시작된다. 사전의 항목 수는 당초 852개에서 최종적으로는 797개가¹⁶ 되었지만 이전 사전들보다 기술 항목을 대폭 줄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까지 제시하는 기존의 찾는 사전에서 읽는 사전으로의 전환을 꾀했다. 이렇게 된

¹⁴ 긴다이치 하루히코·하야시 오키·시바타 타케시 편(金田一春彦·林大·柴田武編)(1988), 《일본어백과사전》, 대수관서점(大修館書店).

¹⁵ 쓰키모토 마사유키(月本雅幸)(2018), 「간행의 경위(刊行の経緯)」, 《일본어학대사전》, 동경당출판.

¹⁶ ‘다나카 마키로(田中牧郎)(2018), 「신간 close up 『일본어대사전(新刊クローズアップ『日本語学大辞典』)」, 《일본어학(日本語学)》, 통권 487호(제37권13호)[通巻487号(第37巻13号)], 명치서원(明治書院)’을 보면 본문 분량은 이전 사전에 비해 100쪽이 늘었는데 항목은 3분의 2로 줄었다고 한다.

것은 정보화의 영향이다. 기존 사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문헌이나 문헌 목록은 인터넷상의 각종 누리집을 참고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전에는 일절 수록하지 않기로 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의 정보화가 가져다준 혜택이다. 실제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누리집에 들어가면 이전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문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현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을 비롯 다양한 누리집을 통해 일본의 대표적인 고전은 거의 모두 검색이 되며 심지어 영어 번역까지도 접근이 가능한 시대이다. 특히 자료가 많아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근대 자료들도 기록 보관(아카이브)을 통해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¹⁷ 자료는 삭제하고 각 기술 항목에 대해서는 최신 연구 성과 및 앞으로의 연구 전망은 물론 이에 대해 개별 항목 담당 연구자와 편집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담았다는 것은 놀라운 결실이다.

1980년 이후 일본에서의 일본어 연구는 모든 분야가 그렇듯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디지털 사회의 도래는 물론 인적 교류 확대에 의해 《국어학사전》, 《국어학대사전》을 집필하던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일본어에 대한 생각을 과거의 것으로 만드는 변화가 일어난다. 마치 일본어 연구 사전이 70여 년의 세월을 거쳐 《일본어학대사전》이란 이름으로 나오게 된 것처럼 《국어학사전》이 일본어 연구 1세대의 생각을 투영한 것이었다면 《국어학대사전》은 2세대이며 《일본어학대사전》은 이 사전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긴 노무라 교수의 말처럼 3세대의 사전인 것이다. 그는 이 사전 말미에 실은 글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¹⁸ 다소 길지만 일본어 연구의 약 70년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 사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별로 숫자로 구분해서 제시한다.

¹⁷ <https://ndlonline.ndl.go.jp/#/>

¹⁸ 노무라 마사야키(2018), 「삼대에 걸친 인연(三世の縁)」, 《일본어학대사전》, 동경당출판.

- ① 1958년 대학생이 된 나는 대학 도서관에서 3년 전에 나온 《국어학사전》을 만났다. 아직 국어학과 국문학의 구분도 잘 몰랐던 나에게 국어학이라는 연구 세계를 알게 하는 데 대단한 역할을 했다.
- ② 1980년 발간된 《국어학대사전》을 근무하던 국립국어연구소 연구실에서 보게 되었다. 판형도 크게 인쇄된 개정판은 국어학이라는 학문이 보다 확장되었음을 실감케 하는 것이었다.
- ③ 2004년 학회 명칭 개정이 실현되었다. (중략) 이것이 단지 이름 변경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기의 연구 활동을 돕는 사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학회 회원이 참가할 수 있는 대사전의 개정과 개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이러한 생각은 학회 회원들의 찬성을 얻어 2008년 편집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④ 학회 스스로 ‘일본어학’이라는 연구 분야를 명확히 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기술 항목에 대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언어 연구의 출발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8세기 초반 일본에서는 ‘국학(国学)’이라는 학문이 태동한다. 당시 일본은 쇄국 상황에서도 나가사키(長崎)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서구 학문을 접하고 있었다. 서구 학문과의 접촉을 통해 다른 세상을 접하고 놀란 일본은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문의 길을 모색한다. 당시 동양 학문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중국, 중국어에 대해 외국, 외국어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일본의 사상을 탐구하기 위해 그동안 잊혀진 《고사기(古事記)》나 《겐지 이야기(源氏物語)》와 같은 과거 문헌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은 한문으로 기록된 문헌이 아니었기 때문에 18세기 당시 읽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를 읽기 위해 출발한 것이 일본 문법 연구의 시작이었다. 즉 고전을 읽기 위한 방법 모색이 일본어 연구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¹⁹

당시 중국과 일본은 조선과는 달리 바다로 격리된 덕분에 시차를 두고 전

해지는 한자의 운용과 발음이 화석처럼 일본어에 축적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사라진 한자의 발음과 의미마저도 일본어에는 남아 있었기에 당시 학자들은 시대만 특정하면 중국인보다 더 한문을 잘 읽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중국뿐 아니라 당시 조선에 대한 멸시로 이어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들은 고전을 읽기 위한 문법 연구로부터 시작된 ‘국학’ 나아가 ‘국어학’은 문헌 강독을 위한 보조 학문으로 자리매김하였고 1980년대까지 일본 주요 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의 언어 연구는 옛날 문헌을 읽기 위한 도구로 존재하게 된다.²⁰

②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서구 언어학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일본어 연구자가 늘어나고 일본어를 연구하려는 유학생이 증가하게 된다. 일본의 경제 발전에 의해 일본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 대학에서는 일본어 교육, 나아가 일본어학이라는 분야가 각광받게 된다. 소위 ‘국어국문학과’ 학부 졸업생은 일본어 교사나 일본어학 전공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정보 혁명은 그동안 ‘국어학’ 연구의 근본을 뒤흔들었고 말뭉치(코퍼스)가 언어 연구에 있어서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학제 간 연구’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컴퓨터의 발달로 고어 입력, 한자 변환, 외국어 입력 등 그동안의 언어 연구의 벽이 사라지게 되었다. 유니코드에 의해 거의 모든 언어 입력이 가능해졌고 언어 연구 환경은 바뀌었다. 결국 아날로그 시대인 1980년대에 발행된 《국어학대사전》은 이러한 변화를 담지 못했다.

③ 2004년 ‘국어학회’에서 ‘일본어학회’로의 개칭은 ②에서 기술한 시대의

19 이 부분에 대해 한국어로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문헌으로는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지음, 임성모 옮김(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35~48쪽 참조.

20 필자가 유학한 1987년 당시 지도 교수로부터 처음으로 지정을 받은 수강 과목이 문헌 강독이라는 수업이었다. 초서체로 쓰인 문헌을 하나하나 현대 일본어 문자로 옮기고 거기에 나타난 문법 형태와 내용을 통해 어느 시대 어느 작품인지를 맞히는 수업이었다. 문학 전공은 시대별로 산문과 운문으로 세분화되어 여러 교수가 있었지만 ‘국어학’ 전공은 학과 교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일본의 다른 주요 대학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언어 연구를 반영한 사전의 발간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말뭉치 언어학이 각광받게 되며 다양한 말뭉치가 구축되고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말뭉치 기반 한국어 사전이 나오게 된다. 영어는 물론 한국어, 일본어 등 세계 각 언어의 말뭉치가 만들어지면서 다국어 번역기가 나오게 된다. 이제 언어 연구는 언어의 보편성과 개별 언어의 특수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현재 정보화에 의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사전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말뭉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길도 비약적으로 쉬워졌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며 언어 관찰자로서의 모어 화자의 내성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반면 언어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자기 개혁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어 연구를 ‘국어학’이라는 틀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이미 편협한 생각이 되었고 이에 대해 학회의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했다는 내용이다.

④는 ‘일본어학’이라는 연구 분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미 ‘국어학’과 ‘일본어학’이라는 명칭의 차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다. 이제 언어의 차이를 떠나 언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전제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논할 시대가 되었다는 인식을 언급한 것이다. 언어 연구도 이제는 기존 연구를 지배하던 ‘국민 국가’를 위한 사상이 아닌 과학으로서 연구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언어 연구가 나아갈 지향점이 무엇인지 공감하는 연구자가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여러 동기가 겹쳐 내용적으로도 언어 과학이라는 말이 연상될 정도로 이전의 사전에서 볼 수 없었던 항목들이 이 사전에서 대폭 등장한다. ‘애매 함 회피(prominence)’, ‘담화 분석’, ‘말뭉치’, ‘다언어 사회’, ‘인지 언어학’, ‘제2 언어 습득’, ‘문식성(literacy)’ 등이다.²¹

3. 《일본어학대사전》에 보이는 시각의 변화

이 사전은 전체 내용을 19개의 장으로 크게 나누고 각 장을 대항목으로 하고 이를 세분화한 중항목을 표제어로 하고 있다. 소항목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중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 예시에서 [일본의 언어 정책]이 대항목이 되며 ‘상용한자표’가 중항목이다. 중항목 아래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은 소항목으로 각 시대에 만들어진 상용 한자표에 대해 중항목인 ‘상용한자표’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²²

A 총기·언어·언어정책

[일본의 언어정책]

[한자]

상용한자표……………525

←상용한자표(1923)

←상용한자표(1981)

←상용한자표(2010)

표외한자자체표……………772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국어’를 예로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한 세 사전의 기술을 비교해 보자. 《국어학사전》을 제외한 이후 두 사전에 대해서는 이 단어에 대한 기술 분량이 많아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추출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²¹ 다나카 마키로(田中牧郎)(2018)의 앞 글 참조.

²² 日本語学会編(2018), 《日本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22쪽.

《국어학사전》 ((언어)) (1) 한 국가의 중추를 이루는 민족의 언어. 국가 어라고도 함. (중략) (2) 일본어와 동일어. (중략) (3) 「국어」라는 것은 (1), (2) 이외에 한자어나 외래어에 대해 고유어(和語)를 나타내는 별칭, 「방언」에 대해 표준어·공통어의 별칭으로도 사용되며 나아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교수 과 목의 하나인 「국어과」의 별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긴다이치 하루히코]²³

《국어학대사전》 【협정의 국어】 일본어의 관용에 의하면 일본어를 고쿠고(國語)라고 한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일본어라는 것은 자기가 속하는 국가의 언어라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어서 논리를 넘어선 이 관용을 일본인은 따르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인의 심리로써 여기에는 국어 즉 일본어라는 대치가 일어나고 있다.

【광의의 국어】 광의의 보편 개념으로서의 국어라는 것은 한 국가가 스스로의 존재 성립의 전제로서의 사용을 해당 국민에게 보증하고 있음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이의 사용을 배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언어를 지칭한다. [가메이 타카시(亀井孝)]²⁴

《일본어학대사전》 【정의】 나라의 말.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다양한 의미】 국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을 조사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니시 아마네(西周) 《백학연환(白学連環)》(1870)에서 language의 번역어로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라(의) 말」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시기에 한자어로 번역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본이 통일된 국민 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해 가는 메이지 후기에 걸쳐 「방어(邦語)」, 「일본어」, 「일본 국어」와 같은 용어가 등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나라의 말」이라고 했을 때 「나라」를 지칭하는 범위, 그 형태 등, 그리고 「말」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함의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고대로부터 일본 열도에서만 사용되어 온 말(즉 한자어를 배제한 고유 일본어)라고 할 수도 있으며 향토에서 사용하는 말을 지칭할 수도 있다. 「나라」와 「말」의 정의를 애매하게 놔둔 채로 지냈기 때문인지 「국어(國語)」라고 표기하고 「고쿠고」라

²³ 국어학회 편(1955), 《국어학사전》, 동경당, 382쪽. 그의 일본어의 특징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책으로는 1957년 《일본어(日本語)》, 이와나미서점(岩波新書), 1988년 신판을 참조.

²⁴ 국어학회 편(1980), 《국어학대사전》, 동경당출판, 371~372쪽.

고 읽게 하는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었다. (중략) 가메이 타카시는 《국어학대사전》(1980)의 「국어」라는 항목에서 국어를 광의와 협의로 구별하고 있다. (중략) 광의든 협의든 기본에 존재하는 것은 국어라는 말은 「나라」를 근대 국민 국가, 「말」을 이의 운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비한 변종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야스다 도시아키(安田敏朗)]²⁵

위의 인용을 통해 ‘국어’라는 항목에 대한 시대의 변화와 서로 다른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연구 분야와 배경이 다르다는 것도 이러한 기술의 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긴다이치 하루히코는 도쿄대학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 그의 부친은 도쿄대학 교수였다. 그는 여러 대학 교수를 역임했지만 주로 방송계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필 활동을 한 인물이다.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하와이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으나 그가 1957년 집필하여 135만 부가 팔린 문고판 『일본어(日本語)』(상·하)에서 발견되는 일본어의 특징을 보면 조사나 경어가 발달했다는 것이 일본어의 특징이라고 기술하는 등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인식 부족이 보인다. 개인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외국어, 나아가 일본어라는 언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가가 이 책을 통해 드러난다.

가메이 타카시(亀井孝)는 ‘국어학’이라는 용어가 갖는 배타적인 의미를 지적하며 ‘일본어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1960년대부터 주장한 언어학자이다. 그는 당시의 ‘국어학’이라는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²⁶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기 학문의 불모지에 대해 말하자면 도시 계획 지도를 그리며 학문 영역의 구획을 그으려고 했을 때로 대학의 제도라는 틀을 두고 당시로

²⁵ 일본어학회 편(2018), 《일본어학대사전》, 동경당출판, 379~381쪽.

²⁶ 가메이 타카시(亀井孝)(1966), 《언어사 연구 입문 일본어의 역사=별권(言語史研究入門 日本語の歴史=別巻)》, 평범사(平凡社), 3~4쪽.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술은 고마쯔 히데오(こまつ ひでお) (1972), 「서평 가메이 타카시 씀(書評 亀井孝 著)『일본어학을 위해서(日本語学のために)』, 《国語学》, 第88集, 国語学会, 121~128쪽 참조.

서는 이것이야말로 학문의 실질적 분류라는 의미에서 소위 국어학과 언어학을 서로 다른 아궁이를 가진 집으로 따로 지었다. 이리하여 언어학과 대등한 지위를 주장할 수도 있는 국어학이 때로는 언어학을 불신에 찬 시선으로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언어학에 대해 트집을 잡는 국어학자가 오히려 언어학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이러한 무지함 때문에 오는 대담함에 의해 아직도 19세기의 낡은 언어학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 언어학을 비판하는 예를 볼 때 이것도 또한 제도상에 있어서의 언어학과 국어학의 분할이 가져다 준 희극이라고 통감하게 된다.

그는 이 글을 쓸 때보다 훨씬 먼저인 193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조명을 받으며 ‘국어학’이 ‘일본어학’으로 바뀌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1980년 《국어학대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이 나왔지만 ‘국어’라는 항목을 그가 집필한 것을 보면 기술 내용 자체는 무미건조한 것으로 느껴져도 당시 ‘국어학회’가 그에게 이 항목에 대한 집필을 의뢰한 것을 보면 당시에 이미 시대의 흐름과 ‘국어’라는 용어가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야스다 도시아키는 박사 학위 논문에서 그가 나온 도쿄 대학 교수이자, 《국어학사전》이 나올 당시 국어학회 대표 이사로 간행글을 쓴 도키에다 모토키의 학문을 비판하는 내용을 쓰며 주목받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 후 히토쓰바시 대학 교수가 되고 일본의 국어학, 일본어학에 존재하는 의식, 무의식의 전체주의에 대한 의미 있는 비판을 가한 저술을 정력적으로 쓰고 있는 인물이다.

위 세 명의 기술이 명확히 차이 나는 것은 개인의 학문적 성향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본어 연구를 둘러싼 시대의 변화와 학문 세대의 교체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집필자에게는 극히 제한된 분량과 항목밖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학회 발간 사전의 특징이지만 집필자를 선정하는 것은 학회 편집 위원회의 몫이기에 학회가 무엇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

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학회의 공통 인식이 사전에 반영된다. ‘국어’라는 항목 이외에도 이 사전에는 자칫 개인 연구자의 과도한 주장이나 논쟁이 있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기술한 부분도 보인다. 예를 들면 ‘한자’나 ‘문자’와 관련되는 ‘문자 언어’, ‘서기 언어(書記言語)’에 관한 부분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독자가 함께 읽을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어학회 회원은 물론 일본어 연구자들이 공유할 연구 정보와 가치를 담은 이러한 사전이 나왔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국어학’에서 ‘일본어학’으로의 변화가 의미하는 학문적 객관성과 이론의 중립성, 개방성이라는 측면을 이 사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나가며

일본어학회에서 발간한 세 종류의 사전은 지난 70여 년간 일본의 언어 연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연구 환경 변화는 다른 분야 학문과 마찬가지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정보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연구에 있어서도 개별 연구 분야의 심화가 다른 연구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 의해 촉진되었다. 언어 연구, 나아가 이를 담는 사전은 이러한 연구 분야의 빠른 변화를 수록하기에는 그 속성장 한계가 있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이는 사전이 갖는 규범성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학사전》에서 《일본어학대사전》으로의 기술 항목과 내용의 변화는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학회 회원이 공동으로 집필하는 사전은 학회 회원 모두의 공통 인식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개인 집필 저작물과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자의 고유한 연구 영역이 있는 전문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른 전문가를 통

해 때로는 수정해야 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하며 약 10년에 걸친 편찬을 통해 간행된 《일본어학대사전》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일본어 연구의 초석으로 활용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에 의한 정보 발신이 활발한 시대에서는 연구자의 연구 영역이 세분화, 전문화되어 자칫 연관 분야의 발전과 변화를 못 느끼게 될 위험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단점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아날로그 시대를 상징하는 종이 사전 편찬이 갖는 유용성을 《일본어학대사전》에 대한 글을 쓰며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사전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해석할 부분이 많다. ‘국어’는 물론 ‘국어 생활’, ‘표준어’, ‘한자’, 서기 언어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의가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장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지음, 임성모 옮김(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노무라 마사아키 지음, 송영빈 옮김(2004), 《한자의 미래》, 커뮤니케이션 북스.

亀井孝(1966), 《言語史研究入門 日本語の歴史=別巻》, 平凡社.

亀井孝·河野六郎·千野栄一他編(1988~2001), 《言語学大辞典(第1巻~第7巻)》, 三省堂. (<https://joao-roiz.jp/SLE/>)

金田一春彦(1957), 《日本語》, 岩波書店.

金田一春彦·林大·柴田武編(1988), 《日本語百科大事典》, 大修館書店.

国語学会編(1955), 《国語学辞典》, 東京堂.

国語学会編(1980), 《国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こまつ ひでお(1972), 「書評 亀井孝著『日本語学のために』」, 《国語学》, 第88集, 国語学会, 121~128쪽.

佐藤喜代治編(1977), 《国語学研究事典》, 明治書院.

田中春美編(1988), 《現代言語学辞典》, 成美堂.

田中牧郎(2018), 「新刊クローズアップ『日本語学大辞典』」, 《日本語学》, 通巻487号(第37巻13号), 明治書院.

月本雅幸(2018), 「刊行の経緯」, 《日本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時枝誠記(1941), 《国語学原論 言語過程説の成立とその展開》, 岩波書店.

日本語学会編(2018), 《日本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野村雅昭(2018), 「三世の縁」, 《日本語學大辭典》, 東京堂出版.

安井稔編(1971), 《新言語学辞典》, 研究社出版.

安田敏朗(1998), 《植民地のなかの『国語学』》, 三元社.

참고 누리집

일본어학회(<https://www.jpling.gr.jp/kaiin/osirase/osirase2000-2003.html#forum>)

일본 국회도서관(<https://ndlonline.ndl.go.jp/#/>)

일본 국립국어연구소(https://db3.ninjal.ac.jp/publication_db/)

국립국어원 소식

1. 2019년 상반기(1, 2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주요 내용 (총 38개)

연번	표제어 (유형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가입	「1」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감.	「1」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가거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상품 따위를 신청함.	• 뜻풀이 수정
2	까다롭다	까다-롭다	까다롭다	• 표제어 수정
3	경영진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 는 사람들의 진용(陣容).	회사의 경영을 맡은 사람들 로 구성된 집단.	• 뜻풀이 수정
4	그러다	「1」‘그리하다’의 준말. 「2」【-고】그렇게 말하다.	「1」‘그리하다[1]’의 준말. 「2」‘그리하다[2]’의 준말. 「3」【-고】그렇게 말하다.	• 뜻풀이 추가 (수정)
5	그리하다	그렇게 하다.	「1」그렇게 하다. 「2」【…을】((‘르’ 것을 그리 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 과 반대되게 행동하다. 「열 차가 떠났다니. 조금만 더 서 두를 것을 {그리했어}.	• 뜻풀이 추가
6	-ㄴ 겁니다	「1」「어미」 합쇼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객관화 하여 청자에게 일러 줌을 나 타내는 종결 어미. 친근하게 가르쳐 주거나 자랑하는 따 위의 뜻이 섞여 있다.	「1」「어미」 하심시오할 자리에 쓰여, 화 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객 관화하여 청자에게 일러 줌 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친근 하게 가르쳐 주거나 자랑하 는 따위의 뜻이 섞여 있다.	• 뜻풀이 수정
7	도제기마 인물상	신라 때의 토우(土偶) 한 쌍. 1924년 금령총에서 출토된 것으로, 하나는 앞가슴에 부 리를 달고 궁둥이 위에 술잔 모양의 물 넣는 구멍을 낸 말 위에 삼각형 모자를 쓴 정장 한 사람이 앉아 있으며, 다른 하나의 같은 양식의 말 위에	신라 때의 토우(土偶) 한 쌍. 1924년 금령총에서 출토된 것으로, 하나는 앞가슴에 부 리를 달고 엉덩이 위에 술잔 모양의 물 넣는 구멍을 낸 말 위에 삼각형 모자를 쓴 정장 한 사람이 앉아 있으며, 다른 하나의 같은 양식의 말 위에	• 뜻풀이 수정

연번	표제어 (유형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꼭지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 있다. 국보 제91호. 누 기마 인물 도상.	꼭지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 있다. 국보 제91호. 누 기마 인물 도상.	
8	됨됨이	사람으로서 지니고 있는 품 성이나 인격. 누됨됨.	「1」사람으로서 지니고 있는 품성이나 인격. 누됨됨. 「2」사물 따위의 드러난 모 양새나 특성.	• 뜻풀이 추가
9	막07	「3」((일부 동사 앞에 붙어)) ‘주저 없이’, ‘함부로’의 뜻 을 더하는 접두사. 『막가다 /막거르다/막보다/막살다.		• 뜻풀이 삭제
10	막넛동생	=막내아우.	맨 끝의 동생.	• 뜻풀이 수정
11	무단02	無斷	無斷/無端	• 원어 수정
12	물영양	숫과의 포유류. 어깨의 높이는 약 1미터, 체중은 170~250 kg이고 수컷의 뿔은 80cm 정 도이다. 몸은 검은 갈색에 목 과 궁둥이 주위에 고리 모양의 흰 반점이 있다. 대형 영양으 로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에 분 포한다. 누워터벅. (Kobus ellipsiprymnus)	숫과의 포유류. 어깨의 높이는 약 1미터, 체중은 170~250 kg이고 수컷의 뿔은 80cm 정 도이다. 몸은 검은 갈색에 목 과 엉덩이 주위에 고리 모양의 흰 반점이 있다. 대형 영양으 로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에 분 포한다. 누워터벅. (Kobus ellipsiprymnus)	• 뜻풀이 수정
13	바리새파	(←Pharisee派)	(←Pharisei派)	• 원어 수정
14	배차	정해진 시간 또는 순서에 따 라 자동차나 기차 따위를 일 정한 선로 또는 구간에 나누 어 보냄.	일정한 선로 또는 구간에 자 동차나 기차 따위를 나누어 두거나 나누어 보냄.	• 뜻풀이 수정
15	벧짐	『어느 술도가에서는 하루에 스무 섬의 {벧짐을} 저 나른 일도 있다. <<한무숙, 만남>>	『치렁치렁 {벧짐을} 지고 가 는 지게꾼들, 낫질을 하는 아 낙네들, 이삭을 줍는 애들… <<오유권, 대지의 학대>>	• 용례 수정
16	보기01	『학생들이 어려워하자 선 생님은 {보기를} 들어 다시 설명해 주셨다./다음 {보기 에서} 설명하는 인물이 누구 인지 답안지에 적으시오.	『학생들이 어려워하자 선 생님은 {보기를} 들어 다시 설명해 주셨다./다음 {보기 에서} 설명하는 인물이 누구 인지 답안지에 적으시오./다 음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	• 용례 추가

연번	표제어 (유형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보 시오.	
17	복어		복魚	• 원어 수정
18	비분강개 하다	슬프고 분하다.	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복받 치다.	• 뜻풀이 수정
19	아09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 타내는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 문법 정보 수정
20	애태우다	「3」→ 애타다.		• 뜻풀이 삭제
21	야12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 타내는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 문법 정보 수정
22	어찌	「4」((감탄 표현의 ‘-ㄴ지’, ‘-는지’ 따위와 함께 쓰여)) 동작의 강도나 상태의 정도 가 대단함을 나타낸다.	「4」((감탄 표현의 ‘-ㄴ지’, ‘-는지’ 따위와 함께 쓰여)) 동작의 강도나 상태의 정도 가 대단하게.	• 뜻풀이 수정
23	엉덩이	볼기의 뒷부분. 늑둔부02(臀 部)·히프(hip)「1」. 『{엉덩 이가} 크고 평평하다/나는 녀석의 {엉덩이를} 뽐다 걸 어챘다./대기하고 있던 간호 사가 {엉덩이에} 주사를 놓 았다./오만준은 일어서서 특 특 {엉덩이에} 묻은 마른 잔 디 풀을 털어 내더니 가슴을 지나치게 편 걸음걸이로 사 라져 버렸다.《최인호, 무서 운 복수》/간호 장교가 코를 막고 알코올 스펀지를 {엉덩 이에} 재빨리 문질러 댔다. 《신상웅, 히포크라테스의 홍상》	「1」볼기의 뒷부분. 늑둔부02 (臀部)·히프(hip)「1」. 『대 기하고 있던 간호사가 {엉덩 이에} 주사를 놓았다./간호 장교가 코를 막고 알코올 스 펀지를 {엉덩이에} 재빨리 문질러 댔다.《신상웅, 히포 크라테스의 홍상》 「2」볼기의 뒷부분과 아랫부 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엉덩이가} 크고 평평하다 /나는 녀석의 {엉덩이를} 뽐 다 걸어챘다./오만준은 일어 서서 특특 {엉덩이에} 묻은 마른 잔디 풀을 털어 내더니 가슴을 지나치게 편 걸음걸 이로 사라져 버렸다.《최인 호, 무서운 복수》	• 뜻풀이 추가
24	예민하다	「1」【…에】무엇인가를 느 끼는 능력이나 분석하고 판 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여	「1」【…에】무엇인가를 느 끼는 능력이나 분석하고 판 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여	• 뜻풀이 추가

연번	표제어 (유형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나다. 「2」어떤 문제의 성격이 여러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대하고 그 처리에 많은 갈등이 있는 상태에 있다.	나다. 「2」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감각이 지나치게 날카롭다. 「1」 그는 참말 요새같이 감정이 {예민해} 가다가는 큰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강경애, 인간 문제>/얼핏 보기는 개구쟁이요, 응석받이 같지만 한 가지, 다른 아이들보다 흥이에게 {예민하고} 조숙한 면이 있는 것을 월선은 느낀다.<박경리, 토지> 「3」어떤 문제의 성격이 여러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대하고 그 처리에 많은 갈등이 있는 상태에 있다.	
25	옮기다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다. 그는 전공을 법학에서 정치학으로 옮겼다.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 앞으로 옮겼다. 그녀는 숙소를 시골 농장으로 옮겨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다. 고구려는 서울을 국내성으로 옮겼다.	의사가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다.	• 용례 수정
26	옮기다		「2」 정해져 있던 자리, 소속 따위를 다른 것으로 바꾸다. 그는 전공을 법학에서 정치학으로 옮겼다. 그녀는 숙소를 시골 농장으로 옮겨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다. 고구려는 서울을 국내성으로 옮겼다.	• 뜻풀이 추가
27	옮기다	「2」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다. 「3」 관심이나 시선 따위를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돌리다.	「3」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다. 「4」 관심이나 시선 따위를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돌리다.	• 뜻풀이 수정

연번	표제어 (유형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4」 어떠한 사실을 표현법을 바꾸어 나타낸다. 「5」 한 나라의 말이나 글을 다른 나라의 말이나 글로 바꾸다. 「6」 「…을 …에」 어떠한 일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다. 「7」 「…을 …에」 한 곳에 자리던 식물을 다른 곳에다 심다.	「5」 어떠한 사실을 표현법을 바꾸어 나타낸다. 「6」 한 나라의 말이나 글을 다른 나라의 말이나 글로 바꾸다. 「7」 「…을 …에」 어떠한 일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다. 「8」 「…을 …에」 한 곳에 자리던 식물을 다른 곳에다 심다.	
28	웁다	그는 경리과에서 인사과로 <u>웁아</u> 앉았다.	…그들 젊은 부부는 남편의 폐병에 <u>좨다</u> 하여 마을 뒤 <u>과수원으로</u> {웁아} 살았다.《이법선, 살모사》	• 용례 수정
29	이시여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 문법 정보 수정
30	지우다01	「1」 ¶~ /마룻바닥에 묻은 얼룩을 <u>걸레로</u> {지웠다}. /~.	「1」 ¶	• 용례 삭제
31	지우다02	「3」 ¶	「3」 ¶마룻바닥에 묻은 얼룩을 <u>걸레로</u> {지웠다}.	• 용례 추가
32	죄다	「1」 느슨하거나 헐거운 것이 <u>단단하거나 팽팽하게</u> <u>되다</u> . 또는 <u>그렇게 되게</u> <u>하다</u> .	느슨하거나 헐거운 것을 <u>단단하거나 팽팽하게</u> <u>하다</u> . 또는 <u>그렇게 되다</u> .	• 뜻풀이 수정
33	죄다	<u>살이 찼는지 바지가 너무 죄어서 불편하다</u> . <u>신발이 작은지 발이 조금 죄다</u> . <u>나사를 죄다</u> . <u>굵은 벨트로 배꼽이 튀어나올 때까지 허리를 죄고 천천히 이 거리를 배회하게 되리라</u> .《오정희, 유년의 뜰》 <u>그는 허리를 굽혀 다시 수도꼭지를 죄기 시작했다</u> .《이동하, 도시의 늑》	<u>나사를 죄다</u> . <u>굵은 벨트로 배꼽이 튀어나올 때까지 허리를 죄고 천천히 이 거리를 배회하게 되리라</u> .《오정희, 유년의 뜰》 <u>그는 허리를 굽혀 다시 수도꼭지를 죄기 시작했다</u> .《이동하, 도시의 늑》 <u>목이 죄어서 와이셔츠를 잘 입지 않는다</u> . <u>신발이 작은지 발이 조금 죄다</u> .	• 용례 수정
34	죄다	「2」 차지하고 있는 자리나 공간이 <u>좁아지다</u> . 또는 <u>그렇게 되게 하다</u> .	「2」 차지하고 있는 자리나 공간을 <u>좁히다</u> . 또는 <u>그렇게 되다</u> .	• 뜻풀이 수정

연번	표제어 (유형별 가나다순)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35	죄다	자리가 너무 죄어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다. 일본의 5만 군사는 남원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바짝바짝 죄어 왔다.《문순태, 피아골》	일본의 5만 군사는 남원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바짝바짝 죄어 왔다.《문순태, 피아골》 자리가 너무 죄어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다.	• 용례 (순서) 수정
36	죄다	「3」 마음이 긴장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3」 긴장하거나 마음을 줄이다. 또는 그렇게 되다.	• 뜻풀이 수정
37	죄다	가슴이 너무 죄어서 도저히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 가슴을 죄며 합격자 명단을 보았다. 문 앞에서부터 나는 마음을 죄고 있었다.《윤후명, 별보다 멀리》	가슴을 죄며 합격자 명단을 보았다. 문 앞에서부터 나는 마음을 죄고 있었다.《윤후명, 별보다 멀리》 가슴이 너무 죄어서 도저히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	• 용례 수정
38	호소하다 01	【…에게 …을】 【…에게 -고】	【…에/에게 (…을)】 【…에/에게 -고】	• 문형 정보 수정

2. 국립국어원 2019년 2분기 말다듬기 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 그로서란트(grocerant)의 다듬은 말: 식재료 식당
- 래핑 광고(wrapping 廣告)의 다듬은 말: 도배 광고
- 클린 이팅(clean eating)의 다듬은 말: 자연식
-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의 다듬은 말: 과대 포장 거부 운동
- 플랜테리어(planterior)의 다듬은 말: 식물 인테리어

‘그로서란트(grocerant)’는 고객이 식재료 구입과 식사를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 ‘식재료 식당’으로 다듬었다. ‘래핑 광고(wrapping 廣告)’는 ‘실사 출력한 광고 디자인이나 광고 내용을 건물, 교통수단 등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전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 ‘도배 광고’로 다듬었다. ‘클린 이팅(clean eating)’은 자연에서 채취한 식재료를 사용하면 서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곡물·첨가제 등의 활용을 제한하는 식문화를 가리키는 데, ‘자연식’으로 다듬었다.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과도하게 포장된 상품의 포장지를 버리고 오는 운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 ‘과대 포장 거부 운동’으로 다듬었다. ‘플랜테리어(planterior)’는 친환경 인테리어의 일종으로 식물을 이용하여 실내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뜻하는데, ‘식물 인테리어’로 다듬었다.

이번에 다듬은 말들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매장에서 장보기를 마치고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재료 식당 (←그로서란트)이 인기를 끄는 공간이 되고 있다.
- ○○구가 청사 내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출입구 등에 도배 광고(←래핑 광고)를 이용한 재난 안전 홍보에 나섰다.

- 최근 과일·채소와 통곡물·견과류 등 모든 음식을 자연 상태 그대로 건강하게 즐기는 자연식(←클린 이팅)이 유행이다.
- 장을 보고 나면 수북이 쌓이는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에 화난 시민들이 과대 포장 거부 운동(←플라스틱 어택)을 하며 ‘쓰레기는 사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
- 공기를 정화하고 집안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식물 인테리어(←플랜테리어)가 인기다.

3. 국어문화학교 운영 결과 보고

- 원내 국어문화학교

정규과정: 9회, 784명

특별과정: 7회, 554명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일반과정: 94개 기관, 105회, 9,239명

기획과정: 23개 기관, 27회, 1,201명

- 제14회 강사 연수회

기간: 2019. 6. 26.(수)~6. 28.(금)

장소: 충북 청주시 오송읍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벨류시티 세종호텔

참석: 국립국어원 직원 및 전국 국어문화원 강사 등 60여 명

내용: 청소년 언어문화 및 어르신 대상 국어문화 프로그램 개발 현황과 활성화 방안, 지역 국어문화원 운영사례 공유 등

4. 국내외 한국어교원 연수회

4.1. 2019년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 개최

- 기간: 2019. 6. 26.(수)~7. 16.(화) 3주 공통 과정
2019. 7. 17.(수)~8. 6.(화) 3주 박사급 추가 과정
- 장소: 국립국어원, 이화여자대학교
- 대상: 외국 국적의 한국어 교육 전공 및 경력자 16명
- 내용
 - 교육 활동(1~3주 차): 기본 교과(한국어 발음·어휘·문법 교육론 등), 특강(한국어교육 정책 및 교육자료 활용법 등), 현장 학습(문화 체험 등), 특별 활동(국외 한국어 정책 워크숍, 발표 및 토론, 분임별 토의 등)
 - 연구 활동(4~6주 차): 한국어교육(정책) 관련 연구 결과물 작성 및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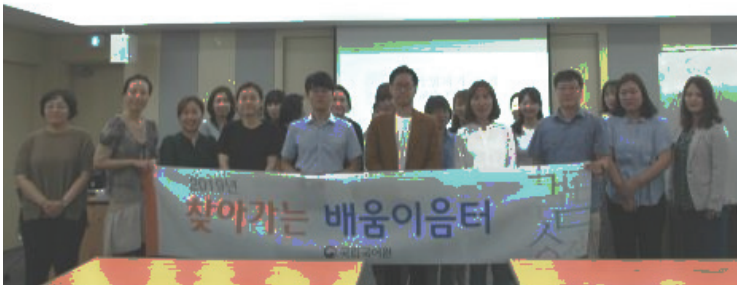
4.2. 2019년 사회통합프로그램·다문화교육 정책학교·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원 대상 배움이음터 개최

- 일시: 2019년 8월 6일(화)~8월 9일(금)
- 장소: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 대상: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한국어교원 48명,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교원 5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원 48명
- 주요 내용: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관련 전문가의 주제 특강, 관계 부처 특강 및 분임 토의



4.3. 국내 대학 한국어교원 대상 찾아가는 배움이음터 개최

- 일시: 2019년 9월 5일(목)
- 대상 기관: 경기대학교 국제교육원
- 특강 주제: 한국어 말하기·듣기 교수 방안, 한국어 읽기·쓰기 교수 방안
 ※ 하반기(9~10월) 국내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 13곳,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1곳 개최 예정



5. 국제 교류

5.1. 한국어 전문가 파견(독일)

- 파견 지역: 독일 프랑크푸르트
- 일시: 2019. 6. 13.(목)~6. 17.(월)
- 파견자: 박선(어문연구과 학예연구사), 최권진(인하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주요 내용: 독일 지역 교원 연수회 강의 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해외 한국어 보급 활성화를 위한 독일 지역의 한국어교육 현황 파악 및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5.2. 한국어 전문가 파견(미국 NAKS)

- 파견 지역: 미국 시애틀
- 일시: 2019. 7. 16.(화)~7. 22.(일)
- 파견자: 소강춘(국립국어원장), 이승재(언어정보과장)
- 주요 내용: 미국 내 한국어 관련 학자들과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주최 '제37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참석
미국 내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제10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중 연수회' 개최 지원 특강





5.3. 한국어 전문가 파견(일본)

- 파견 지역: 일본 오사카
- 일시: 2019. 7. 27.(토)~7. 28.(일)
- 파견자: 김수현(한국어진흥과 학예연구사)
- 주요 내용: 서일본 지역 교원 연수회 강의 지원을 통한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한국어교육 현황 파악



5.4. 국제고려학회 주최 제14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 참석

- 출장 지역: 체코(프라하)
- 일시: 2019. 8. 17.(토)~8. 23.(금)
- 방문자: 정희원(어문연구실장)
- 주요 내용: 남북을 포함한 전 세계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동향, 체코 현지 한국어 연구 및 한국어 교육 현황 파악

국립국어원은 8월 18일(일)부터 8월 21일(수)까지 개최된 국제고려학회 주최 제14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에 참석하고 프라하한국학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현지 한국어 연구 및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체코 방문을 추진하였다. 이번으로 14차를 맞은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언어 및 문학뿐만 아니라 역사, 사회, 예술, 의료, 민속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회 참석을 통해 전 세계의 한국학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각국의 한국학 연구자 및 관련 해외 기관 관계자와의 인적 교류를 통하여 국어 정책 외연을 확대할 수 있었다.

5.5. 2019년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 실시

- 목적: 급변하는 국외 한국어 교수·학습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 한국어 교원 양성
- 실습 기관: 중앙아시아 4개 지점, 동아시아 5개 지점 내 한국어 교육 기관
 ※ 중앙아시아 실습 지점-카자흐 알마티, 키르기스 비슈케크, 우즈베크 타슈켄트·사마르칸트,
 동아시아 실습 지점-일본 도쿄·지바, 교토·오사카, 러시아 사할린
- 선발 절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및 모의 수업 심사

- 선발 인원(총 92명)
 - 예비 교원: 총 75명(카자흐 23명, 키르기스 7명, 우즈베크 7명, 일본 26명, 러시아 12명)
 - 경력 교원: 총 17명(중앙아시아 7명, 동아시아 10명)
- 실습 기간: 약 1개월(카자흐-7월·9월·10월, 키르기스·우즈베크-7월, 일본-7월·10월, 러시아-9월·10월)

6. 각종 행사

6.1. 2019년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관련 학술 행사(국어학회)

- 주최: 국립국어원,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주관: 국어학회
- 일시: 2019. 6. 21.(금)~22.(토)
- 장소: 전남대학교
- 주제: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연구

구분	주제 및 토론 의제	발표자 및 토론자
기획 발표 1	• ‘언어 간 영향(CIL)’의 관점에서 본 대조언어학적 차이	허용(한국외대)
기획 발표 2	• 대조언어학을 통한 한국어 문법 연구	목정수(서울시립대)
기획 발표 3	• 한일 관형절의 시상법에 관한 연구	정상철(한국외대)
기획 발표 4	• 한국어 ‘(말)하다’와 중국어 ‘說’의 문법화 대조: 담화표지화를 포함하여	심지영(세종대), 박은석(서울대)
기획 발표 5	• 인지문법으로 본 한중 대조 연구: 시간부사 ‘还’와 ‘아직·여태’의 의미 기술과 의미지도 모형	이운재(서울대)
기획 발표 6	• 한국어와 어원키어의 격표지 대조 연구: 주격과 속격을 중심으로	칼리나(서울대)

구분	주제 및 토론 의제	발표자 및 토론자
연구 발표 1	• 속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문에 대하여	김지혜(성균관대)
연구 발표 2	• 일제 강점기 조선어 교과서의 표기법적 특징 고찰	송미영(충남대)
연구 발표 3	• 진도지역어의 비모음화 재고	강희숙(조선대)
연구 발표 4	• 집합과 관련된 '있다' 구문의 한 유형	이성우(한양대)
연구 발표 5	• 전남방언의 '이' 모음 역행동화에 대하여	진주(전남대)

6.2. 2019년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관련 학술 행사(한국방언학회)

- 주최: 국립국어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주관: 한국방언학회
- 일시: 2019. 6. 28.(금)~29.(토)
- 장소: 서울대학교
- 주제: 북한 언어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분	주제 및 토론 의제	발표자 및 토론자
주제 발표 1	• 현대 연변조선어 단모음 /ㅈ/와 /ㅊ/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허진(일본 도쿄대)/ 배운정(서울대)
주제 발표 2	• 함경남도 北靑 방언 名詞 악센트 자료	유필재(울산대)/ 임석규(원광대)· 백금란(서울대)
주제 발표 3	• 북한 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인호(대구대)
주제 발표 4	• 평안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정의향(중국 양주대)
주제 발표 5	• 함경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남명옥(중국 장춘대)
주제 발표 6	• 황해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장승익(전북대)
초청특강	• 북부 방언의 어제와 오늘	곽충구(서강대)
주제 발표 7	• 중국 거주 조선족의 언어태도와 언어 사용 양상	오선화(중국 복단대)/ 임흥련(한림대)

구분	주제 및 토론 의제	발표자 및 토론자
주제 발표 8	• 탈북민 방언의 거시화용론	김주성(연세대)/ 양수경(서울대)
주제 발표 9	• 재한 조선족의 담화분석	다케야(일본게이오대)/ 김수현(국립국어원)
주제 발표 10	• 겨레말 사전과 북한 방언	이길재(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 /고영진(일본 도시샤대)
주제 발표 11	• 전남방언 비모음화의 지리적 분포	강희숙(조선대)/ 김소영(서울대)
주제 발표 12	• 경남 방언 동사 ‘쿠다’의 형성 동기와 과정	김한별(서강대)/ 이상신(아주대)
주제 발표 13	• 충남 논산 지역어 담화표지 ‘머’의 기능과 분포	염종진(송실대)/ 문병열(한남대)

7. 2019년 제2회 국립국어원 원내 토론회

-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15:0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 주제: 다양한 사전 콘텐츠의 수요와 사전의 미래
- 강연자: 도원영(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올해 두 번째 원내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도원영 교수가 ‘다양한 사전 콘텐츠의 수요와 사전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 사전이 도입되면서 종이 사전 출판 규모가 감소되었다. 어학 사전은 감소한 반면 전문 분야 사전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52개 중분류 중 인지과학, 해양학, 의공학, 미생물학 등 18개 분야의 사전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다. 또한 통시 사전, 특수 이용자를 위한 사전, 이용자 적응형 사전, 사전과 비사전의 융합, 표현용 사전(은유 사전)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

태이다.

최근 디지털 전문 사전의 부재 또는 부족, 고급 정보에 대한 이용자 요구의 증가, 공개 자료 디지털 사전 편찬 시스템의 활용, 새로운 기술 적용을 통한 분야 간, 매체 간 융합 가능성의 확대로 새로운 사전 편찬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기초 자료의 디지털화, 사전 기반 서비스와 유통, 창조적 정보 추천 서비스 지원, 사전 이용자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 개발 등 미래 사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새로운 사전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면서 마무리하였다.

8. 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과 보고

8.1. 제145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개최

- 일자: 2019. 6. 19.(수)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인근

이번 위원회에는 외래어 심의회 위원 14명이 모여 네덜란드의 운동선수명 ‘스하우텐, 이레너(Irene Schouten)’ 등 총 12건의 외래어 표기를 확정하였다.

8.2. 《새국어생활》 편집위원회 개최

- 일자: 2019년 8월 14일(수)
- 장소: 국립국어원

이번 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 3명이 모여 2019년 겨울 호, 2020년 봄 호 특집 주제 및 필자 후보를 선정하였다.

8.3. 제146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개최

- 일자: 2019. 8. 28.(수)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인근

이번 위원회에는 외래어 심의회 위원 13명이 모여 미국·영국의 경영가명 ‘레이크, 메리앤(Marianne Lake)’ 등 총 20건의 외래어 표기를 확정하였다.

9. 인사이동

9.1. 전보

- 김정호(서기관): 기획운영과 → 문화체육관광부(7월 1일)
- 유향옥(행정사무관): 기획운영과 → 문화체육관광부(7월 1일)
- 한종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운영과(7월 1일)
- 김형배(학예연구관): 공공언어과 → 특수언어진흥과(7월 29일)
- 이대성(학예연구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언어과(7월 29일)
- 황용주(학예연구관): 특수언어진흥과 → 문화체육관광부(7월 29일)